

현대시

1.	1	2.	3	3.	2	4.	5
5.	2	6.	1	7.	2	8.	2
9.	2	10.	3	11.	3	12.	4
13.	1	14.	3	15.	5	16.	3
17.	1	18.	2	19.	4		
20.	4	21.	2	22.	5	23.	5 24.
25.	1	26.	5	27.	3	28.	3
29.	2	30.	4	31.	3		
32.	1	33.	2	34.	5		
35.	3	36.	4	37.	1	38.	4 39.
40.	3	41.	5	42.	2		
43.	4	44.	1	45.	4		

현대소설

1.	1	2.	4	3.	5	4.	4
5.	1	6.	5	7.	4	8.	5
9.	3	10.	3	11.	5	12.	3
13.	3	14.	2	15.	3	16.	5
17.	5	18.	4	19.	2	20.	4
21.	1	22.	4	23.	3	24.	3
25.	2	26.	2	27.	5	28.	4
29.	5	30.	2	31.	1	32.	3
33.	4	34.	5	35.	3	36.	5
37.	3	38.	2	39.	5	40.	3
41.	1	42.	4	43.	3	44.	2
45.	4	46.	1	47.	1	48.	5

고전시가 정답

1.	3	2.	4	3.	2	4.	3
5.	3	6.	5	7.	3	8.	2
9.	1	10.	5	11.	3	12.	2 13.
14.	4	15.	4	16.	3	17.	4 18.
19.	4	20.	5	21.	4	22.	4 23.
25.	5	26.	4	27.	4	28.	2
29.	1	30.	4	31.	2	32.	3 33.
34.	3	35.	3	36.	4	37.	3 38.
40.	1	41.	3	42.	3	43.	2 44.
46.	3	47.	2	48.	5	49.	4
50.	1	51.	4	52.	2	53.	3 54.
56.	5	57.	2	58.	3	59.	4 60.

고전소설 정답

1.	1	2.	5	3.	1	4.	2 5.
6.	5	7.	2	8.	1	9.	4 10.
11.	5	12.	4	13.	2	14.	1
15.	3	16.	5	17.	4	18.	5
19.	5	20.	2	21.	3	22.	1
23.	3	24.	1	25.	5	26.	4
27.	5	28.	1	29.	4	30.	1
31.	1	32.	4	33.	5	34.	5
35.	3	36.	4	37.	2	38.	3
39.	1	40.	4	41.	5	42.	3
43.	1	44.	5	45.	3	46.	4
47.	1	48.	3	49.	3	50.	5

1.123245

2103 1-4번

(가) 김남조, 「 설목(雪木) 」

이 시는 이별한 화자가 한자리에서 추위를 견디며 하얀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내면의 슬픔과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가 가꾸어 온 ‘설목’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이고 순결한 사랑을 표상하고 있다.

(나) 김광섭, 「 겨울날 」 이 시는 겨울날 힘든 상황에서 이사를 하고 그곳에서 어머니의 부채를 실감하게 된 화자가 삶의 고단함과 쓸쓸함을 느끼며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겨울날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인식 또한 드러내고 있다.

1.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나)에서 ‘총총히’, ‘뽕뽕’, ‘어정어정’, ‘왈칵’ 등과 같은 의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나, (가)에는 의태어를 사용한 표현을 찾기 어렵다.

[오답풀이]

② (가)와 (나) 모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표현은 찾을 수 없다.

③ (가)에서는 독백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에서는 대화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점층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태 변화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2. [출제의도]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나)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은 어머니와 이별하게 된 화자의 황망함을 드러낸 것이다. 화자가 성찰을 통해 내적 성숙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가을에 이별한 상황에 주목해 보면, ‘시냇물마저 여위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만물이 쇠락한다는 계절의 특성과 연결해서 감상할 수 있다. 이는 화자의 쓸쓸한 처지와 조응한다고 볼 수 있다.

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가)에서 화자는 상대방이 떠난 후에 ‘미워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 내 옆에 남아줄이 더욱 백 배는 / 고맙고 복되었을 것’이라고 돌이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별하지 않기를 바랐던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지 이별의 슬픔을 승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③ ‘나뭇가지’가 ‘사철 고드름’을 달고도 위로 뻗는 모습으로 ‘설목’을 형상화한 것은 어떤 시련에서도 사랑을 지키고 싶다는 지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마지막 연에서 화자가 상대방을 부르며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겠다는 것은 화자 내면의 절대적 사랑을 강조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㉞은 화자가 어머니의 죽음을 어느 날 갑자기 당면하게 된 것과 같이 주변 사람들과 이별하게 될 어느 날을 떠올리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5.2617282

2104 1-4번

5.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북두성좌’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우리 집’을 보호해 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나)에서는 ‘달걀들’이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와 동일시된 대상이라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마지막 행에서 청유형 어미를 활용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청유형 어미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와 (나)는 모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는 4연의 ‘추운’, ‘따스한’ 등을 통해 촉각적 심상의 대비가 제시되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촉각적 심상의 대비가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6.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에 따라 작품 이해하기

㉠을 보면, ‘북두성좌’는 ‘우리 집’을 보호하는 주체이므로, 화자 가족의 불행을 초래하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을 보면, ‘천상’은 가족을 보호하는 ‘북두성좌’가 밤마다 존재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을 보면, ‘그것들’은 화자가 비록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을 보면, ‘노란 것들’은 ‘마분지곽 위로’ ‘기어오르’며 생명력이 느껴지는 행동을 하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을 보면, ‘너희들’은 ‘희망소비자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팔려온’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가)에서 화자는 ‘아이’에게 ‘어서 돌아와’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하고 있으므로, ‘우리 집’은 화자가 가족과 함께 회귀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활용된 소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또한 (나)에서 화자는 ‘냉장고’를 열고 접한 ‘달걀들’을 통해 자신 ‘역시 여권이 분실된’ 것과 같은 처지임을 확인하게 되므로, ‘냉장고’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되는 기회로 활용된 소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는 ‘나’가 ‘부화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달걀들’이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어 있는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가)에서는 ‘거리 끝’이 ‘저녁 한길’로 나간 시적 화자가 보게 된 시적 대상일 뿐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어 있는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아이야’를 통해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인 ‘아이’를 부르고 있고, (나)에서는 ‘너희들’을 통해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인 ‘달걀들’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에서는 시적 화자가 ‘보오얀 초생달’을 통해 시적 대상인 ‘초생달’에 대한 시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나)에서는 시적 화자가 ‘달걀들의 속삭임소리’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에 대한 시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는 화자가 ‘저물도록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는 시적 상황이 드러나고, (나)에서는 ‘우리’ ‘형제들’이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입원비’를 ‘걱정’하는 것에서 ‘가난’한 시적 상황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는 ‘수유’하다고 표현된 짧은 시간을 ‘영위’하는 ‘인간’과 ‘무궁’하다고 표현된 끝이 없는 ‘우주’가 ‘인연 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대비되는 시적 대상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이 드러나고, (나)에서는 ‘살아서 즐거워 보이는’ ‘병아리’와 ‘살아서 불행하다’는 ‘나’의 모습이 대비되어 시적 대상과 시적 화자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뜨거운’이라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소외된 존재들에게 보내고 싶은 ‘입술’의 온기를 구체화하고 있다. (나)는 ‘차운’이라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물보라’의 부정적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구성이 나타나 지 않는다. ③ (가)에는 묻는 형식이 나타나나 그에 대해 답하는 형식은 나타나지 않으며, (나)에는 묻고 답하는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는 색채어 ‘푸른’이 나타나나 (나)에는 색채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도,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도 나타나 지 않는다.

10.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C]에서 화자는 ‘별들’, ‘수녀들’, ‘수인들’이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다고 여기고, 황혼을 통해 그들에게 자신의 ‘입술’을 보내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 받기를 바란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 화자는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다의 흰갈매기’에 비유하여 부각하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서 황혼의 품에 안긴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고자 하므로 황혼의 ‘손’에서 ‘모－든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행상대’나 ‘인디언’이 황혼의 ‘품안’에 안기기를 바라며, ‘황혼’에게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고 말함으로써 ‘지구의 반쪽’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E]에서 화자는 오늘 맞아들인 황혼으로 인해 ‘오월의 골방’ 이 ‘아늑’해졌음을 느끼면서, ‘내일도 또 저－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라는 표현을 통해 오늘 밤이면 사라지는 ‘황혼’이 ‘내일도’ 다시 찾아올 것이라 여기며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1. [출제의도] 시상 전개 방식 파악하기

(나)에서 화자는 ‘물거품’같이 ‘일었다간 스러’졌던 과거의 자신을 ‘아득히 띄워보내’려 하므로 이러한 행동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미련을 읽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화자는 자신의 ‘옛날’과 현재를 단절시킴으로써 긍정적인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과거에 겪었던 시련을 떠올리며 ‘차운 물보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②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해로가 일렁’이는 상황에도 화자는 자신이 현재 홀로임을 느끼고 있다.

④ 화자는 현재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을 ‘아득히’ 띄워 보내며 부정적 과거와 단절되기를 바라고 있다.

⑤ 화자는 현재 ‘바다만’ 한 ‘슬픔’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뉘우치지 않을’ ‘하늘’을 꿈꾸고 있으므로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바다’는 ‘차운 물보라’나 ‘부서지는 파도’와 같이 고난과 슬픔의 부정적 속성을 지닌 공간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 바다 위에 존재하는 ‘하늘’은 ‘물거품’으로 ‘자폭의 잔을 채우던’ 과거의 자신과는 달리 ‘뉘우치지 않’아도 되는 긍정적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 화자는 자신이 ‘꿈꾸고 있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바다만’ 한 ‘슬픔’을 던고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는 바다를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난과 슬픔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화자가 ‘커－튼을 걷’음으로써 골방 밖 세계에 있는 황혼이 골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이를 통해 차단된 두 공간이 연결될 수 있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화자는 골방의 ‘커－튼을 걷’ 어 황혼을 맞아들이고자 하고 있다.

②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별들, 수녀들, 수인들, 행상대, 인디언 같은 소외된 존재들에게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황혼의 기운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③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소외된 존재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고립된 공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므로 황혼을 통해 그들에게 자신의 입술을 보냄으로써 그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전하고 싶어 한다.

⑤ (나)의 화자는 1연에서 바다의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울음을 참’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으나, 5연에서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 박두진, 「설악부」

이 시는 ‘설악’을 소재로 하여 이상 세계를 열망하는 시인의 정신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에서 ‘설악’은 순환적 질서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영원하고 신성한 모성의 세계로 그려진다. 이 속에서 화자는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나 세대가 항구적으로 이어지게 될 미래를 그리면서 새로운 이상 세계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노래한다.

(나) 이기철, 「길의 노래」

이 시는 ‘대구’와 ‘은혜사 술바람 소리’가 양쪽에 놓여 있는 길 위에 선 화자의 모습을 통해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을 조명한다. 무위한 자연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인위적인 세속의 삶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을 성찰적 시선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13.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에서는 ‘울어라’, ‘그립다’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나)에서는 ‘어디이겠는가’, ‘있을까’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14. [출제의도] 시상이 전개되는 특징을 이해한다.

[B]에서는 시상이 ‘산’에서 ‘양지깹’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양지깹’에 꽃이 피고 무덤이 푸르러진 때를 제시하고 있다. ‘양지깹’은 ‘꽃이 피는 때’, ‘내 푸른 무덤’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백골’이 묻힐 곳이 부정적인 공간으로 바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흠날린다’, ‘뒤뚱였다’, ‘빠진다’는 모두 존재를 압도하는 ‘눈’과 관련된 시어들로, 화자가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② ‘고요－하다’에 이어 ‘너무 고요하여’를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있는 공간이 매우 적막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늘 내일로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항상 앞으로만 나아가려 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부각한다. 따라서 이것이 현실에 초연할 수 있다는 화자의 믿음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④ ‘예지도’는 인간 세계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 온 지혜로운 생각마저도, ‘산 끝’에 있는 ‘물’과 같은 자연에서는 거추장스러운 것 즉, 성가신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1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나)에서 ‘달력’과 ‘일과표’가 ‘내 늑골 밑에서 보채던’ 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위적으로 짜

인 삶에 얽매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것이 인위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의 열망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다른 태양이 쏘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한 것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 속에서 ‘나’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즉, 생명이 억압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④ (나)에서 ‘대구’는 세속적인 세계를, ‘솔바람 소리’는 무위한 자연의 세계를 표상한다. 따라서 ‘길’을 ‘한쪽 끝’에는 ‘대구’를, ‘다른 쪽’에는 ‘솔바람 소리’를 달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무위한 자연이 주는 평안을 회구하면서도 세속적인 세계에 얽매어 그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

17.	1	18.	2	19.	4
-----	---	-----	---	-----	---

 2203 28-30번

(가)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이 시의 제목은 남신의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 씨 집 ‘에서’라는 뜻으로 당시 편지 봉투의 발신인 주소에 흔히 쓰던 형식으로 되어 있다. 1 ~ 행까지는 가족들과 헤어져 객지에서 외로이 떠돌다 누추한 거처를 마련하게 된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고단한 행적을 잘 보여 준다. 이어서 행부터는 화자가 방 안에서 여러 날 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새기며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다가 자기 안에 갇든 내면의지를 굳고 정한 갈매나무에 견주어 떠올림으로써 앞으로 자신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 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이 시는 4.19 혁명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시인의 대응을 잘 보여 준다. 혁명의 실패는 화자의 가슴을 메마르게 하고 혁명의 구호와 노래도 헛소리처럼 느끼게 한다. 그렇지만 화자는 진실로 무거워야 할 실패의 무게를 오히려 가벼움으로 삼으려는 역설적인 발상을 통해 그 좌절감에서 비껴서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화자는 그 좌절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며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기쁘고 풍성함을 느끼는 자신에 대한 냉소와 서글픔을 노래한다.

17.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는 ‘내 가슴이 짝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펴 괴일 적이며’ 등과 같이 유사한 형태의 문장을 반복하였고 (나)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와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등과 같이 유사한 형태의 문장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문장의 형태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가)에서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자앉고’는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화자의 마음속에 있던 슬픔과 한탄 등이 가라앉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으로 제시한 것이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가)의 맥락을 고려할 때, ‘더 크고, 더 높은 것’은 화자가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화자 자신을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권을 붙’인 방은 화자가 세를 들게 된 방으로, 그 방이 ‘습내 나는 좁고, 누긋한 방’이라고 한 것은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을 보여 준다.

② (가)에서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썩 김질’하는 화자의 모습은 화자가 방 안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보여 준다.

③ (나)의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라고 한 것은 혁명의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보여 준다.

20.	4	21.	2	22.	5	23.	5	24.	5
-----	---	-----	---	-----	---	-----	---	-----	---

 2204 18-22번

20. [출제의도] 시상 전개 방식의 특징

(가)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의 반복을 통해, (나)는 ‘어떤 때는’의 반복을 통해 시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A]에서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마음’은 ‘달래꽃’이 ‘피어나’게 하는 원인이고, 민중이 고난을 겪는 상황과 관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 ‘달래꽃’은 화자로 하여금 민중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으로서, ‘하잘것없’지만 ‘길이 멀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민중의 영속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B]에서 ‘달래꽃’이 ‘바윗돌처럼’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다는 것에 강인한 생명력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④ [B]에서 ‘달래꽃’은 ‘긴긴 역사’와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는 것에서 민중의 저력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C]에서 ‘달래꽃’이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 및 의미 이해

(가)의 1연에서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난다고 하였고, (나)의 2연에서 ‘마음’은 ‘빈집이어서’ ‘전나무 숲’이 ‘들어앉았다 나’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

㉞은 도덕과 인의를 지켜 ‘양비’가 ‘온전해지면’ 몸이 살찌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 ‘나’가 ‘살찌기를 구’하다가 ‘양비마저 잃게 될까 염려’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서 ‘화려한 거처’, ‘사치스러운 음식’, ‘즐거운 음악’,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색’은 몸을 살찌우는 네 가지 조건이며 ‘양비란 것은’ 이것들을 ‘바탕으로 삼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장사를 잘하지 못한 것’은 ‘초나라 장사꾼’이 ‘형산의 옥’을 ‘금은보화’와 맞바꾼 것을 의미하며 ‘형산의 옥’은 마음을 살찌우는 것을, ‘금은보화’는 몸을 살찌우는 것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옛날의 현인과 군자’가 ‘마땅히’ ‘살찌워야 할 것을 살’렸다고 하여 마음을 살찌우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다)에서 ‘형산의 옥’은 마음을 살찌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세속적 가치와의 유사성을 활용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2연에서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수’의 ‘심적인 억압을 옷에 빗대어 나타냈으며, ‘홀홀 벗고 싶’다고 심적인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형상화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3연에서 ‘예쁘디예쁜 손’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뜨거운’이라는 촉각적 시어를 활용하여 나타내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1연에서 ‘마음’에 ‘별 내리는 고운 마루’가 ‘들어와’ ‘별이 보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마음속에서 실현되었음을 나타내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2연에서 ‘고요’를 ‘둥그런’이라는 시각적 시어를 활용하여 실재하는 대상처럼 드러내었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1연과 8연의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라는 시행의 반복을 통해, (나)는 3연의 ‘잠글 수 없는 것이 어디 시간뿐이라’, ‘아아,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라는 물음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는 생명력이 움트는 봄과 누이를 잃은 화자의 상황이 대조적이 라 할 수 있지만 (가)에서 대화체의 형식을 찾을 수 없다. ③ (가)에는 과거와 현재의 비교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에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26. [출제의도] 시어와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유령처럼’ ‘꽃을 꺾는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과 상관없이 생명력을 피우는 봄을 받아들이 수 없는 화자의 슬픔을 나타낼 뿐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극복한 모습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② 1연의 ‘누이여’와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소리없이 꺾어갔’다는 부분을 통해 누이가 때 이른 죽음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 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고 한 것은 살아 있음에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화자의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1연의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소리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기억’과 연결하여 보면 ‘기억의 얼음장’은 누이에 대한 기억임을 알 수 있다. ‘살아 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자가 누이를 잃어 슬퍼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억의 얼음장’에 ‘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인다는 것은 누이에 대한 기억이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④ ‘봄’이 되자 ‘접혔던 꽃술’이 ‘또다시’ 펴진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과 관계없이 다시 찾아온 봄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27.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은 ‘해바라기’가 피어 있고 ‘수천 마리의 낮닭이 깃을 치며’ 우는 곳 이므로 생명력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은 누이를 잃은 화자의 슬픔을 형상화한 공간이다. 뜨거운 ‘햇덩이’가 ‘이글거리는’ 곳을 ‘맨발로 산보’한다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화자가 고통을 느끼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2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가)에서 ‘배’가 떠나자 ‘별빛’이 쏟아져 ‘어둠’을 밝히는 장면은 문안의 꿈속에서 본 모습일 뿐 꿈속 세계가 현실에서도 이어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꿈속 세계가 현실에서도 이어짐은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라는 시행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마을’은 해바라기가 피고 낮닭이 깃을 치며 우는 삶의 공간이고 ‘바다’는 ‘꽃상여’가 도착하는 죽음의 공간이다. 따라서 마을에서 바다를 가기 위해 거치는 ‘산모퉁잇길’은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 소리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 기억을 향하여 봄이 왔다’와 ‘떠다니는 내 기억의 얼음장마다 / 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일 뿐이다’를 통해 화자는 누이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봄은 그러한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에서 누이의 죽음인 ‘하나의 작은 죽음’이 ‘큰 죽음들’을 거느린다고 하였으므로 누이의 죽음이 슬픔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	--	---

29.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B]에서 ‘밤마다 밤새도록 꺼지고 싶지 않았지’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자신의 심정을 ‘등잔불’에 투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도망하고 싶던 너의 아들’, ‘가슴 한구석이 늘 차그웠길래’ 등을 통해 볼 때, 화자가 시적 공간에 대해 친밀감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30. [출제의도]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나)에서 어린 화자가 ‘램프불 밑’에서 본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화자가 조금 자라서 ‘칸텔라불 밑’에서 본 것은 ‘협상국은 금점꾼들’과 그 ‘아내들’의 모습이었다. 화자가 소년이 되어 ‘전등불 밑’에서 본 것은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갯방의 휘황한 불빛’이었다. 화자는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칸텔라불 밑에서 놀았다’,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의 변화는, 화자가 경험한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 왔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가)의 ‘마음의 불꽃’은 ‘도망하고 싶던’ 화자가 고향을 떠나면서 거느렸던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것이 화자가 고향을 떠나면서 느꼈던 아픔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나)의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화자가 어린 시절 집에서 놀면서 보았던 금점꾼들과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돌음새졌던 것으로, 고향을 떠나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화자가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서 슬픔을 느끼게 된 것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되돌아온 고향이 화자가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는 세계였음을 나타낸다. ② (나)에서 화자가 ‘내 망막’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어린 시절 보았던 어머니와 할머니를 그리워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자신의 근원인 모성적 세계를 그리워함을 보여 준다. ④ (가)의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는 화자가 고향을 떠나 느꼈던 힘겨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은 화자가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를 유랑하면서 느꼈던 재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⑤ (가)의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은 고향을 떠나 지내던 화자가 고향의 부름에 이끌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나)의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는 고향을 떠나 유랑하던 화자가 결국 자신의 구심점인 고향으로 회귀하려는 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	--

(가) 정지용, 「 장수산 1 」 이 시는 깊은 겨울 산의 고요한 정경을 ‘별목정정’을 통해 환기하며 시작한다.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는 절대 고요와 부동의 공간 속에서 화자는 조차히 늙은 옷질 중의 맑고 깨끗한 정신적 경지를 뒤따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화자는 바람도 일지 않는 깊은 산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고 심히 흔들리는 내면의 동요를 느낀다. 그러면서도 차고 울연히 이 겨울을 견디겠다는 견고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흔들리는 내면의 시름 속에서도 정신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화자의 치열한 정신적 고투가 역력히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나) 고재중, 「 고요를 시청하다 」 이 시는 초록으로 물든 오월의 마당을 둘러싼 깊은 고요를 노래하고 있다. 수국 송이처럼 몽실몽실 부푸는 오월의 고요 속에서 화자는 송순주한 잔에 그리운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요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초록 바람에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오월의 은밀한 연주를 들으면서 고요에 물들어 간다. 적막한 고급의 시골집 마루에서 마주한 오월의 고요를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32.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아름드리 큰 술’이 ‘베어짐직도 하이’라고 한 것은 깊은 산속에서 큰 나무들이 베어지며 내는 소리를 환기하여 깊은 산속의 고요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는 자연의 속성이 환기된 것은 아니다.

33. [출제의도] 시상의 흐름을 파악한다.

[A]에서는 고요가 초록을 낳았다는 표현을 통해 마당을 물들인 초록에 주목하도록 한다. 이어지는 [B]에서는 초록의 군림이 점점 더해진다는 표현을 통해 마당에 초록이 점점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에 고요의 심장을 붉은 진동으로 물들이는 덩굴장미의 붉은 색채가 어우러지면서 오월의 계절감이 부각된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가)의 화자는 바람도 일지 않는 장수산의 고요에도 심히 흔들리는 시름을 안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화자 내면의 고요가 외부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는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하얗게 눈이 내린 겨울 달밤의 고요한 장수산의 분위기가 잘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가 송순주 한 잔에 떠올린 추억 속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소박한 고요’와 ‘묵묵한 고요’를 담고 있는 인물들로, 화자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정오’의 고요에 잘 어울리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③ ‘찌르렁’하고 들릴 것 같은 깊은 산속의 메아리 소리와 딱 한 번 들린 동박새의 울음소리는 모두 고요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된 소리이다. 고요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고요가 부각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④ (가)의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요를 표현한 것이고, (나)의 ‘삼베울만치나 무수한 고요’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한 것이다.

35.	3	36.	4	37.	1	38.	4	39.	4
-----	---	-----	---	-----	---	-----	---	-----	---

 2304 22-26

35.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나)는 ‘이 땅에서 냄새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에서, (다)는 ‘그러므로 사람은 ~ 어찌 이득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잠수부에게 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해 의미를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물뱀들’이 살아있길 바라는 ‘그 저수지’는 화자가 물이 순환하기를 기대하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하지만 (가)에서 ‘발목을 오여’싼 ‘시궁치’는 화자가 꿈꾸던 안식의 공간을 나타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우고 ‘산호도는 구경도 못 하는’ 것은 화자의 고달픈 삶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목숨’이 ‘깨어진 배 조각’처럼 흩어지고 ‘내 꿈’이 ‘밀항하는 썰크와 같’다는 것은 흘러가는 배의 노정에 화자의 삶을 관련지어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마음’에 덮은 ‘뚜껑이 성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 것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 온 것은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율, (나)에서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갈대꽃’이 피길 바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작품을 비교하여 이해하기

(가)는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에서 남들과는 다른 처지에 대한 ‘나’의 주관적 인식율, (다)는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로움에 나아감에 견주어 보면 ~ 또 내 일을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냐고 묻는 것에서 벼슬하는 사람과는 다른 처지에 대한 ‘잠수부’의 주관적 인식율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작품의 맥락 이해하기

[D]에서 ‘독약 먹이는 세월’에 ‘병든 자’로 살아온 원인은 [E]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가 부패해 가는 이유는 [B]에서 ‘나’가 ‘목은 관료들’이 ‘숙변’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치욕’을 받아들인 것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B]에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상황은 [C]에서 ‘나’가 ‘침묵’하고 ‘슬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지속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C]에서 ‘침묵’하고 ‘슬픔’을 받아들인 행위는 [D]에서 ‘나’가 ‘독약 먹이는 세월’에 쓸개가 ‘병든’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E]에서 ‘본 적이 없다’는 ‘물왕저수지’에 대한 상상은 [F]에서 ‘잉어들은 쪼뼛거리고 물오리떼는 날아올라’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글쓴이는 ‘일을 택함의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있을 뿐 ‘벼슬길’에 대한 ‘옛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쁜 고기들’이 많고 ‘바다 밑’이 매우 차갑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라는 직업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관청’에 전복을 ‘바치는’ ‘양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가 겪는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가 지닌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그 말을 기록하여’ ‘벼슬길에 오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알리려는 글쓴이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3	41.	5	42.	2
-----	---	-----	---	-----	---

 2307 32-34

40.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가)는 ‘~면 ~다’, ‘~을 ~다고 ~수 있느냐’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나)는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생명력을 지닌 나무와 현대인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번쩍’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두 눈을 뜨는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가)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가)에는 겨울과 봄이라는 계절의 모습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꽃을 피우고 있는 나무의 상황이 드러나지만 (나)에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 (나)는 모두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⑤ (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41. [출제의도]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는 것은 현대인이 각자의 일생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내고 있음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㉔는 나무가 땅에 깊숙이 뿌리 내리는 것처럼 젊은이들도 내면의

힘을 키워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 ㉞의 나뭇가지 끝은 젊은이들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는 시어일 뿐, 극단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시어가 아니다.

③ ㉡는 현대인들이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는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현대인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그들의 내면에 숨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가)의 ‘보이지 않는’과 (나)의 ‘볼 수 없는’은 나무가 꽃을 피워 내고 현대인이 현실을 이겨 내게 하는 힘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가)의 ‘노란 얼굴’은 동짓달에 꽃을 피운 개나리의 모습을, (나)의 ‘무표정한 저 얼굴’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③ (가)의 ‘하늘’은 나무가 꿈을 피워내며 향해가는 곳을, (나)의 ‘땅속’은 현대인이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다.

④ (가)의 ‘밝고 넓게 퍼져 나가기’는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꿈을 피워 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의 ‘일으켜 세우는’은 일상에 지쳐가던 현대인이 다시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⑤ (가)의 ‘뿌리’는 나무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게 해 주는 힘의 근원이고, (나)의 ‘불가마’는 현대인이 각자의 내면에 품고 있어 그들이 반복되는 일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힘의 근원이다.

43.	4	44.	1	45.	4
-----	---	-----	---	-----	---

 2310 24-26

(가) 윤동주, 「 간 」

이 시는 고전 소설 ‘토끼전’의 근원 설화로 (용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토끼의 간이 필요한) 거북이의 유혹에 빠진 토끼가 지혜를 발휘해 간을 지킨 ‘귀토지설’과, 인간에게 불을 알려 준 죄로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서 그 벌로 코카서스 산에서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프로메테우스의 설화를 소재로 활용했다. 작가는 간을 지키려는 토끼의 의지와 프로메테우스의 희생을 연결하고 내용을 재구성하여 일제 강점기의 현실에서 희생을 감내하며 양심과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 문정희, 「 신라의 무명 시인 지귀 」

이 시는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지귀 설화’를 소재로 활용했다. 천한 신분으로 선덕 여왕을 사모하다 가 미쳐버린 지귀가 절에서 불공을 드리던 여왕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그사이 여왕이 지귀를 동정하여 그의 가슴에 놓고 간 금팔찌를 보고 지귀가 온몸이 타올라 불귀신이 되었다는 설화의 내용을 변용했다.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설화에 나타난 여왕의 동정심을 적극적인 사랑 찾기로 바꾸어 신분 차이를 넘어서는 진실하고 존귀한 사랑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40.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는 ‘여원 독수리야!’, ‘거북이야!’라고 부르는 방식을, (나)는 ‘지귀여, 지귀여, 사랑하는 지귀여’라고 부르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 (나)는 ‘누군 모르랴,’ ‘이 무슨 아름다운 업보인가.’라는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나 (가)는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지 않았다.

41.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은 ‘둘러리’를 자꾸 돌며 간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간을 지켜낸 토끼처럼 화자가 간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소중한 양심과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너’는 ‘내가 오래 기르던 여원 독수리’이다. 이것은 화자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지만 더는 살찌우지 못한 자아로 볼 수 있다. ‘나’가 뜯어 먹히고 여원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자아를 살찌게 하려는 것이지, 현

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떠꺼머리’는 지귀를 가리킨다. ㉡은 신분 차이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못 맺을 사랑이 없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나)의 ‘아름다운 업보’는 ‘전생에 지은’과 관련지어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여왕에 대한 지귀의 사모를 빗댄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의 내용은 현세에서의 사랑을 다루고 있으며, 내세에서 여왕과의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③ (가)의 ‘목에 맺돌을 달고’는 설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보기>의 ‘자기희생의 의지’와 관련지어 화자가 감수하고자 하는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의 ‘큰 불’은 설화에서 지귀가 불귀신이 된 내용과 관련이 있다. ‘큰 불’을 통해 신분의 장벽을 의미하는 ‘신라땅 모든 사슬’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기 바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1.	1	2.	4	3.	5	4.	4
----	---	----	---	----	---	----	---

 2103 26-29

이 작품은 열두 살 소녀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진희(나)’는 어린 아이지만 아이답지 않은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관찰하며, 자신이 간파한 어른들의 비밀을 서슴없이 들추어 보여 준다. 자신이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해 버린 당돌하고 영악한 소녀 ‘진희’는 일찍 세상을 떠난 엄마에 대한 근원적인 상처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자신을 아껴 주는 외할머니와 조금은 철이 없는 이모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진희’는 세상이 결코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느낀다. 따라서 자신을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로 분리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 이 작품은 한 소녀가 자신의 내적 상처를 딛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26.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A]와 [B]는 모두 서술자인 ‘나’가 편지의 내용을 간추려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B]는 [A]와 달리 간추린 편지의 내용에 서술자가 알고 있는 관련 내용을 덧붙임으로써, 편지를 쓴 이모의 가식적 모습을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오답풀이]

② [B]는 서술자가 편지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A]는 그렇지 않다.

③ 서술자가 편지의 내용에 대해 논평을 곁들이는 방식이 [A]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편지 속에 숨겨진 비밀을 서술자가 하나씩 밝혀 가는 방식은 [A]와 [B]에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⑤ [A]는 서술자가 과거에 본 편지 내용을 회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간추려 전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B]도 서술자가 현재 편지를 읽어 가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27.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파악한다.

이모는 편지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남성형은 변함없이 자신을 아껴 주는 진실한 남성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형렬의 사진과 관련하여 그의 외모가 자신의 이상형에 가깝다는 것을 편지에 솔직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2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이모의 비밀’을 ‘햇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라고 한 것은 ‘나’가 이모의 비밀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지, ‘나’가 어른과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른과의 비밀 공유를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도 <보기>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다.

[오답풀이]

①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한 것은, ‘나’가 자신의 내면을 감추기 위해 노력해 온 것과 관련이 있다.

②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나’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③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데 ‘빳진 마음’이 없다고 한 것은, ‘나’가 자신의 행위를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④ 이모의 편지에 대해 ‘형식적 포장을 극복’했다고 평가하며 ‘이형렬과의 관계’가 깊어졌으리라고 짐작한 것은, ‘나’의 아이답지 않은 시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29. [출제의도]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이해한다.

‘나’는 ‘바라보는 나’를 숨기고 ‘보여지는 나’만을 남들에게 보여 주며 살고 있다. 이처럼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나’는 이것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것이 ‘위선’이 아니라 ‘작위’라고 규정함으로써 ‘나’는 자신이 부도덕하다

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5.	1	6.	5	7.	4	8.	5
----	---	----	---	----	---	----	---

 2104 26-29

26.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은 ‘떡구름’과 ‘비’를 통해 인물들의 우울한 내면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은 ‘떡구름’을 통해 암울한 분위기를 비유적으로 암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인물들의 정서 이해하기

‘여공들’은 ‘경리과장’의 ‘유식한 연설’을 듣고 나서도 ‘처음 사채 동결’의 ‘소식’을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동요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여공들’이 절망감을 느낀 때는 ‘작업 총반장 허씨’의 ‘보충 설명’을 들은 다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 ‘분옥이’는 자신이 ‘삼 년에 걸쳐 모은 그 돈’인 ‘오만 오천 원’이 ‘떼어먹’힌다는 생각에 ‘가슴을 와득와득 쥐어뜯고’ 싶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서 ‘분옥이’는 ‘미장원 마담’이 되는 상상에 ‘정신’이 ‘아물아물 해지며’ ‘몸이 붕붕 뜨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봉자’는 ‘회사’에 넣어 ‘이자’를 받고 있었던 ‘삼만 원’이 ‘그렇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에 ‘겨울 새벽의 텅 빈 들녘’처럼 ‘허허’해 함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길순이’는 ‘어머니와 두 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자꾸 눈시울’이 ‘매워’졌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여공들이 ‘각자’ ‘회사’에 ‘맡긴’ ‘그 돈의 명의’는 ‘법적으로 총무부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경리과에서는’ 여공들의 ‘개인 카드를 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여공들이 ‘맡긴’ 돈을 모두 합하면 ‘팔백오십여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여공들은 ‘사채 법정 이자’를 받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이번 조치’ 이전 ‘경리과에서는’ 여공들에게 ‘매달 원금에 맞는 이자를 분배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길순이’는 ‘내년부터는 별수 없이 신선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자취비, 사글셋방 값’ 지불, ‘집에 사천 원’ ‘송금하기’ 등의 이유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계장’에게 사정사정해서 ‘신선놀이’보다 ‘수입’이 많은 ‘지옥탕’에서 견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분옥이’는 ‘만 오천 원’만 더 모아 ‘칠만 원’으로 ‘육 개월간 미용학원’에 다니고 싶어 하므로 적절하다.

② ‘봉자’는 ‘짙은 향수’를 느껴 돈을 벌었으며 ‘오만 원’만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리라 다짐하므로 적절하다.

③ ‘사장’은 ‘총무부장’과 ‘경리과장’이 짜고 ‘오 리씩 해 먹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자 그들을 ‘용서’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여공들은 ‘사 년째 되는 해부터’ ‘회사’에 맡긴 ‘원금’을 찾게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그’는 ‘김선생’에게, 자신에게 해고를 통보한 ‘문화부장’에 대해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이 만화 연재를 부탁한 ‘문화부장’을 생각하며 내적 독백을 하고 있다. 따라서 [A]에서는 인물의 말과 내적 독백의 교차를 통해 ‘그’의 심리가 드러난다.

[오답풀이]

①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한다는 것은 시공간적 배경이 계속 바뀌면서 서술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가 ‘김선생’과 대화하는 장면만 나타날 뿐 장면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문화부장’은 만화를 그려 오지 않았다는 ‘그’의 말에 ‘그’가 자신이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드러내고 있을 뿐, ‘그’가 만화를 그려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문화부장’은 ‘그’의 해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의 만화를 진심으로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그’는 편집국 안에 들어섰을 때부터 자신이 해고를 당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④ ‘김선생’은 해고를 당한 ‘그’와 술을 마시며 ‘그’에게 새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를 위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그’가 자신이 그리는 만화 주인공인 ‘아톰X군’에게 ‘차나 한잔’ 하자고 하며 ‘군과도 이별이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아톰X군’을 더 이상 그리지 않으려는 ‘그’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11. [출제의도]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기

㉔는 ‘그’에게 해고를 통보한 ‘문화부장’이고, ㉕는 ‘그’가 만화 연재를 부탁한 ‘문화부장’이다. ㉔는 ‘그’에게 해고 사실을 전하였고, ㉕는 ‘그’의 만화 연재 부탁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그’에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부정적 감정인 비애를 느끼게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㉔는 ‘그’가 해고된 상황의 책임을 독자에게 돌리고 있다. ② ㉕는 ‘그’의 만화 연재 부탁을 거절하고 있을 뿐, 만화가의 자질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③ ㉔는 ‘그’에게 먼저 차나 한잔 하자고 했지만, ㉕는 ‘그’가 차나 한잔 하자는 말에 그와 차를 마셨다.

1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다른 신문사를 찾아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지만 거절당한다. 좌절한 ‘그’는 ‘김선생’과 만나 자신이 해고당했음을 말하며 술을 마신다. 따라서 ‘그’가 자신의 해고를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라고 말하는 것은 해고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마저 실패한 ‘그’의 비애가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해고당한 신문사로부터 만화 연재 의뢰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해고를 걱정하던 ‘그’는 ‘계집애’의 표정에서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던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전신에서 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다. 이것은 해고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는 ‘그’의 불안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그’가 ‘김선생’에게 해고를 미역국으로 비유하여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라고 말하는 것에서 자신이 해고당하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그’가 ‘차나 한잔’의 의미를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라고 모순 형용의 표현을 사용해 말하는 것은 ‘문화부장’과 차를 마시며 해고의 말을 들었던 자신의 비참한 심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그’가 ‘아톰X군’의 얼굴을 술상 위에 그렸다 지우며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하고 자신은 ‘힘이 없다’고 미안해하는 것은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나가 자신의 딸에게 하는 속삭임’과 ‘아버지와 아재비가 나눈 속삭임’을 통해 대립을 초월하는 화해와 공존에 대한 지향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어른이 된 ‘나’가 지인의 과수원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어린 시절에 자신을 사랑으로 보살펴 준 아재비에 대해 떠올리는 내용이 서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과 아재비와 아버지가 나눈 속삭임을 주제 의식을 형성하는 두 축으로 삼고 있다.

13.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을 파악한다.

1인칭 서술자인 ‘나’가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은 일들에 대한 기억을 서술하고 있다. 고백적 진술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럴 때의 그들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한다.’,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 ‘안온한 미소’ 등과 같은 말을 통해 과거의 기억에 부여한 의미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⑤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을 취할 수 있는 서술자는 전지적 서술자이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1인칭 서술자이다.

14.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아버지는 아재비의 불안한 신분을 알고 그것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그의 신원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③ ‘나’는 호숫가에 앉아서 볼 수 있는 풍경들에 애정 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나’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과수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아버지의 오랜 투병으로 인한 빚 때문에 보전되지 못했다.

⑤ 어린 시절 ‘나’는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아버지가 반공 강연을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어깨를 으쓱였다.

1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고려하여 감상한다.

‘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에서 ‘고전적인 시인이어야겠다’는 것은 딸에 대한 ‘나’의 바람이 드러난 것이다. ‘나’는 딸이, 서로가 대립하고 싸우는 전쟁의 이미지인 ‘고약한 냄새’를 지우는, ‘모든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 단어’를 ‘가벼움과 부드러움’을 지닌 단어로 바꾸는, ‘미운 단어’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즉 딸이 세상의 대립, 대결 등을 없애고 조화와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은 가족을 모두 버리고 남쪽을 택해 내려온 만큼 공산주의를 싫어했던 아버지와, 남로당의 열성 간부였던 아재비가 대립하지 않고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 준 것을 의미한다. 상식에 따르면 마땅히 대립해야 할 두 사람이 대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은 ‘고전적인 시인이어야겠다’는 것과 의미가 대응한다. ‘나’는 어린 시절의 체험을 통해 이미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따라서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이해하려는 ‘나’의 소망이 ‘고전적인 시인이어야겠다’라는 말에 투영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은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과 대조된다.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은 ‘과수원’에 담긴 ‘평화’의 의미와 대응한다. ‘나’가 ‘과수원’에서 느낀 ‘평화’는 조화와 화해를 이루는 모습으로부터 느낀 것인데, 이러한 조화와 화해는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과 그 의미가 어울려 대립을 초월하는 화해와 공존에 대한 지향이라

는 주제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⑤ 아재비와 아버지의 속삭임은 과수원의 ‘정상 위’, ‘좁은 길’, ‘호수 주변’ 등 사방에서 귀만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그들의 속삭임이 공간과 연계되어 과수원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바람 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은 과수원의 여러 공간과 연계되었기에 ‘나’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 속삭임을 잊지 못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이해한다.

‘나’는 공책에서 일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생각들이 두서없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본다. 아재비가 겪어 온 사고의 모든 갈피들을 접하는데, 그것을 통해 ‘나’는 아재비가 변하지 않은 채로 일생을 살았던 것 같고 그것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다지 숨겼던 것 같지도 않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나’가 공책에 적혀 있는 것을 통해 아재비가 과수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아재비의 신념에 변화가 없었다고 짐작했음을 보여 준다.

[오답풀이]

① 딱지 편지에 인용된 문장은 딱딱한 어투의 글들에 섞여 있던, 정갈하게 정리해서 쓴 말들이다. 이 말들은 ‘작은 호수가 있네. 호수 주변에 채송화를 심었네.’와 같이 부드러운 말들이다. 따라서 딱지 편지에 인용된 문장이 본래 너무도 딱딱한 어투였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아재비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던 생각들은 딱딱한 어투로 쓰인 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글들은 어린 ‘나’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17.	5	18.	4	19.	2	20.	4
-----	---	-----	---	-----	---	-----	---

 2203 31-34번

이 소설은 평범한 직장인인 ‘나’가 우연히 읽게 된 청년 이만집의 일기를 통해 당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성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기의 내용과 그것을 읽는 ‘나’의 논평을 번갈아 제시하면서 이만집의 사고와 행동,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보여 주는 것이 서사의 큰 틀을 이루고 있다. 작가는 이만집과 ‘나’의 목소리를 빌려 속악한 세태를 비판하고, 물질적으로 무능하지만 속물적인 삶을 거부하는 이만집 같은 청년이야말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명에 꼭 필요한 무기질 같은 존재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한다.

17.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이만집이 염색 공장으로 아버지를 찾아간 목적은 경집이 형이 차 사고를 낸 일과 그와 관련해 이후에 진행되어 온 일들을 가장인 아버지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오답풀이]

④ 이만집은 아버지를 만난 후 ‘아버지도 무능하지만 나는 얼마나 더 무력한가!’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만집이 자신을 아버지보다 더 유능하다고 여겼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8.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㉔은 공부를 이유로 취직할 생각을 하지 않는 이만집을 비꼬려는 의도에서 셋째 형수가 한 말이다. 셋째 형수의 말은 이만집의 태도 변화를 예상하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㉔을 통해 이만집은 병든 사회에 부화뇌동하여 세속적 출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교육을 대하는 당대 사람들의 속물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③ 이만집은 아버지를 만난 후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이 그를 향한 사랑의 감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것임을 깨닫는다. ㉔은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인식의 변화를 ‘적잖은 수학’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⑤ ㉔은 이만집이 돈만 밝히는 셋째 형님 내외의 속물적인 태도를 냉소적으로 비난한 말이다.

19.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이해한다.

‘비망록’은 여기서 이만집의 일기를 가리킨다. 이 작품은 일종의 액자 소설로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가 번갈아 제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만집의 일기가 내부 이야기를, 일기 내용에 대한 ‘나’의 논평이 외부 이야기를 이룬다.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인 ‘나’는 이만집의 일기를 통해 속물적 인간과 속악한 사회에 대해 성찰한다. 그러므로 특정 인물의 기록인 비망록이 ‘나’가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살펴보게 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 ㉔는 ㉔(이만집)가 자신의 일기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그의 어머니가 일찍 타계하셨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리고 어머니를 일찍 여윈 사람들은 대체로 정서가 삭막하기 마련인데 ㉔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늘 피해 의식에 시달’린다는 표현은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가 ㉔의 아버지와 만형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㉔의 성격에 대한 진술과는 무관하다.

21.	1	22.	4	23.	3	24.	3
-----	---	-----	---	-----	---	-----	---

 2204 27-30번

2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A]에서 ‘간호원들은 ~ 부산스레 해매고’, ‘의사들’은 ‘기민’하게 ‘층계를 오르내’린다는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병원의 분주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우두머리 의사가 ‘오전 아홉 시’경에 ‘나’에게 ‘오늘 퇴원이시죠?’라고 한 것은 퇴원을 제안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는 ‘언젠가’ ‘누구라도 ~ 못 배길’ ‘매혹적인 웃음’을 ‘화장품 광고’에서 본 적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는 ‘그날 밤’에 ‘피로’를 느끼도록 병동을 오가며 문패를 바꾸는 자신만의 ‘거창한 작업’에 거의 온밤을 새워야 했을 정도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간호원들’은 ‘다음 날’에 ‘언제나 그러하듯’ ‘잔걸음으로 ~ 뛰어다니고 있었’으므로 적절하다.

⑤ 젊은 인턴은 병원에서 발생한 ‘어젯밤’의 사건과 관련하여 ‘나’에게 ‘어젯밤 뭐 ~ 없는지요?’라고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나’는 ‘견고한 미로 ~ 삼입해 보자고 생각’하며 젊은 인턴을 미로 속에 빠진 쥐처럼 생각하고 있고, 쥐는 ‘새로운 방향’을 통해 ‘반복으로 터득한 ~ 포식을 즐길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젊은 인턴이 ㉔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나’가 ‘유쾌한 마음’으로 잠들며 자신이 ‘해산일을 앞둔’ ‘만삭의 여인이 된 셈’이라고 여기는 것은 치료의 대상인 환자가 치료의 주체인 의사가 되는 인물 간의 역할 전도 방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가 ‘문패를 모조리 바꿔서’ ‘병동 전체가 달라’ 지게 하려 한 것에서 공동체의 시스템을 교란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가 ‘미소를 결여’한 의사들을 보고 ‘무표정한 히포크라테스의 모델로 아깝게 전락’했다고 인식한 것에서 감정이 제거된 인간에 대한 연민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가 떠올린 ‘일 초의 주저함도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권위를 보여 주는’ 것에 ‘만족’하는 듯한 의사들에게서 기계적인 일상에 매몰되어 버린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가 ‘사육된’ ‘고등 동물’에 의해 ‘문패’가 ‘제자리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통제된 공동체에 길들여진 인간에 의해 자신의 시

도가 실패했다고 여기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5. 2 26. 2 27. 5 28. 4 2207 31-34번

25.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가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독자가 인물들의 심리나 성격을 추측하여 판단하게 한다.

26.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윤봉이는 세상이 바뀐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귀애해 주던 인민군 병사가 왜 갑자기 떠나버렸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오답풀이]
① 어머니는 세상이 바뀐 뒤에도 인민군가를 부르는 윤봉이에 대해 걱정하는 마을 아낙네들의 충고를 듣고 윤봉이가 인민군가를 부르는 것을 말렸기 때문에 아낙네들의 충고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
③ 가족들은 호랑이 사건 이후 윤봉이의 인기가 대단해진 것에 놀랐고, 사람들의 극성을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가족들이 윤봉이의 인기를 예상한 것은 아니다.
④ 곰배정씨네는 인공 치하에서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세상이 바뀐 상황에서 곰배정씨네가 인민군 치하에서의 일로 자신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곰배정씨네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할 것을 짐작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족들이 윤봉이를 집 안에서만 놀게 한 이유는 윤봉이의 노래 때문이지만 윤봉이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27.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윤봉이의 재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마치 재주를 부리는 곰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공산당에 적극 동조한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려는 데 윤봉이를 이용하려는 ‘불순한 저의’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 ‘곰이 되어가는 윤봉이’를 보며 슬퍼했다.

2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윤봉이가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찬란한 기억’을 ‘채워줄 적당한 선물’이 가족들에게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인민군 치하에서 가족들이 이익을 얻는 계기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윤봉이가 ‘어찌지 못할 바보의 상태’라는 점이 마을 사람들이 윤봉이를 희생양으로 삼기 쉬운 이유였다고 볼 수 있다.
② 마을 사람들이 ‘인민군을 환영하고 공산당에 적극 동조한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는 데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볼 때, 마을 사람들이 윤봉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마을 사람들은 인민군이 떠나도 여전히 인민군가를 부르는 윤봉이의 행동이 마을에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윤봉이를 피했다.
⑤ 가족들은 인민군가를 부르는 윤봉이 때문에 아버지의 신상에 위해가 가해졌다고 생각하여 윤봉이에게 책임을 돌렸다.

29. 5 30. 2 31. 1 32. 3 2210 31-34번

이 소설은 일제의 강압이 심화되던 193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현일과 도영, 병수 세 인물을 통해 ‘불안이라는 유행병’이 만연한 당시의 시대 상황과 지식인들의 혼란스러운 내면 의식을 그리고 있다. 물속과 물양쪽에서 호흡이 가능한 물고기인 폐어처럼 현일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비극적인 상황에서 절망과 비판, 패기와 낙관이라는 두 방향의 의식과 태도를 지니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현일은 폐병으로 죽음에 가까워져 감에 따라

절망과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패기와 낙관을 상실해 간다. 현일은 이 같은 자신의 모습을 ‘죽어 가는 폐어’에 빗대어 깊은 무력감을 드러내지만, 한편으로 병수와 같은 신세대들이 구세대와는 다른,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도 한다.

29.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현일은 병수의 말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그 이유가 병수의 말이 근거 없는 추측이었기 때문은 아니다. 이는 현일이 병수의 말에 대해 ‘전연 억측만도 아닌 바에야’라고 생각한 데에서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③ 현일은 제자인 병수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 ‘젊은이의 청신한 기분’을 맞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실제 대화가 기대와는 다르게 ‘뻘여지는’ 것에 우울함을 느꼈다.

30.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A]는 현일의 내면 의식을 제시한 장면으로, ‘나 역시 이 세상과는 벌써 인연이 떨어진 사람이로구나.’, ‘그러나 지금 내게는 무엇이 남았으랴. 절망인들 남았으랴. 죽어 가는 폐어에게 물도 공기도 무슨 소용이랴.’에서 볼 수 있듯이 현일의 내적 독백을 직접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31.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이해한다.
상징적 소재로서 폐어와 관련해 형성되는 의미의 대립항은 ‘물속’과 ‘물’이다. ‘물속’은 현일의 삶의 조건으로서 절망과 비판을 느끼게 하는 현실을, ‘물’은 현일이 지향하는 패기와 낙관의 삶을 의미한다. 그가절망과 비판에서 벗어나 패기와 낙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철학의 지식’, ‘이론’이다. ‘두 가지 호흡의 기능’을 모두 잃고 죽어 가는 폐어는 폐기를 잃고 절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현일의 비극적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신의 상황에 대해 현일은 ‘무엇이 남았으랴. 절망인들 남았으랴.’하고 탄식한다.

3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현일이 병수의 말에 ‘아픈 타격’을 느낀 이유는, 병수의 말이 현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일은 교사 시절에 그랬듯이 병수와와 대화에서도 의지와 패기를 강조한다. 이에 대해 병수는 그것이 의지와 패기라는 말에 걸맞은 건강한 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현일이 지닌 내면의 절망감과 결핍에서 비롯한 것이 아닐까 하고 냉소적으로 반문한다. 병수의 반문하는 말을 들은 현일은 자신이 지녀 왔던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지만, 사회인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일을 계획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일이 사회인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일을 계획하는 데 병수의 말이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3. 4 34. 5 35. 3 36. 5 2303 18-21번

이 소설은 인간의 억압된 무의식에 잠재한 죄의식과 그 죄의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소설 쓰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나’의 죄의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죄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촌인 ‘규’의 뒤통을 가로챘다는 죄의식이다. ‘나’는 소설 쓰기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불러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상처와 마주하고 죄의식의 연원을 재현하면서 자기 고백을 통한 자기 정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작품은 관념과 현실을 넘나들며 인간의 내면을 탐구해, 소설 쓰기의 본질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3.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나’는 일기를 쓴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면서, 과거에 학교 앞 가게에서 구슬 몇 개를 훔쳤던 일과 그때 느꼈던 불안, 두려움 등을 써 나갔다.
[오답풀이]
③ ‘나’는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 얼음과자를 사 먹은 뒤 두려움을 느끼고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가

그런 생각을 한 바로 그날, ‘나’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나’가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아버지가 죽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아니다.

⑤ ‘나’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하여 죄의식을 갖고 있다. ‘나’는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3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A]는 ‘나’가 쓴 소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A]에는 같은 반 친구가 없어서 버렸으면 좋겠다고 바랐던 과거의 일에 대한 내적 반응이 ‘나’의 목소리로 삽입되어 있다. ‘나’는 과거의 그 일이 순진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하면서 과거 자신의 행위를 조명하고 있다.

35.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나’는 얼음과자를 사 먹기 위해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난 뒤 두려움과 불안감에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㉔은 아버지에 대한 ‘나’의 바람이 본능적이고 즉흥적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나’의 바람이 오래도록 지녀 왔던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얼음과자를 사 먹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나’는 아버지의 지갑에 천 원짜리가 다섯 장이나 있으니 아버지가 천 원짜리 한 장이 없어진 것을 알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돈을 훔쳐 얼음과자를 사 먹은 후에 ‘나’는 아버지의 지갑에는 천 원짜리가 고작 다섯 장밖에 없었다며 다섯 장이라는 지폐의 숫자를 다르게 해석하게 되었다. 지갑 속 천 원짜리 다섯 장에 대한 ‘나’의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나’는 피곤과 수면 부족과 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무엇에 썬 것 같이 소설 쓰기에 몰두하였다. ‘나’에게 있어 소설 쓰기는 고백을 통해 자기 정화를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육체적 고통이 고백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었기 때문에 ‘나’가 치열하게 소설 쓰기를 한 것은 아니다.

37.	3	38.	2	39.	5	40.	3
-----	---	-----	---	-----	---	-----	---

 2304 31-34번

37.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B]에는 허 생원이 ‘그의 집’에서 ‘아이들의 말을 듣’고 ‘독 너머’로가 ‘논’에서 팻말을 본 뒤 ‘집’으로 돌아와 ‘도끼를 찾아 들고’ 다시 ‘자기들의 포플라 밭’으로 나가 도끼로 ‘마구 찍’는다는 점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위가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이해하기

‘청년’은 ‘능글맞’은 태도를 보인 뒤 허 생원의 말에이어 ‘내쳐 능글능글한 태도를 고치지 않’고 ㉑과 같이 말하고 있으므로 허 생원의 반박에 이전과 태도를 바꿨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청년’은 ‘허 생원’이 ‘경계심’을 보이자 ‘약간 의외인 듯한, 그래서 다소 거북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㉑과 같이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허 생원’은 ‘청년’이 ‘경멸의 빛’을 보이며 자신을 알보자 ‘데데하게 물리’서지 않고 ‘쏘아보’며 ㉔과 같이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부락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들’을 하며 ㉔과 같이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허 생원’은 ‘숨진 아들’을 떠올리고 ㉔의 ‘이렇게 된’ 자신의 처지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㉔는 ‘먼 앞날을 내다보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들은 허 생원이 ‘〈먼 앞날〉보다 우선 코앞에 다가 있는 〈사는 문제〉가 더 절박’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㉔는 허 생원이 자신에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㉔는 허 생원에게 ‘정식 징역감이지만 서울 있는 그 유력자의 특별한 부탁으로 석방되는 것이니 그렇게 알라는’ 것으로

로 허 생원이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확인하게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국유지면 서울 놈들만 가지라 카는 법도 있’나며 ‘삼십 년이나 논밭을 치고 갈아’왔다는 것에 는 오랜 시간 가꿔온 밭을 ‘서울 모 유력자’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드러나 있을 뿐 농민이 과거에도 억압적 상황을 겪었다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정부의 시책에 따라 그곳에 새로운 농업단지를 조성키’ 위해 ‘모 유력자가 그 일대의 〈휴면법인토지〉를 도통 쓰게 되었다’는 것에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삼는 자본가에게 농민이 생활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상황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통고 비슷한 말’은 허 생원이 농사를 짓는 땅에 ‘정부의 시책에 따라 ~ 도통 쓰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허 생원이 이를 ‘벌췌한 남의 땅을 맘대로 뺏’는다고 여기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에 근대화 과정에서 농민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촌사람들끼리 같으면’ ‘암것도 아닌’ 일에 ‘구류를 살’게 되면서 ‘법도 사람 따라 다’르다고 억울해 하는 것에 농민이 사회 제도에서 상대적 약자라고 여기는 인식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둘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도끼질’을 하고 ‘불’을 지르는 것에 땅을 빼앗긴 불합리한 현실에 농민이 분노를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1	42.	4	43.	3	44.	2
-----	---	-----	---	-----	---	-----	---

 2307

4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용모가 꿩을 들고 가는 성문에게 ‘위디 가지구 가’느냐고 묻는 말에 조순만은 아버지가 ‘담뱃값 허게 팔어 오라’고 했다는 성문의 말을 용모에게 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용모는 ‘나이타에 지름이나’ 넣으려고 장에 가는 길에 성문을 만나 꿩을 팔러 가는 이유를 들은 후 성문을 돕고자 마음먹은 것이다.

③ 용모가 성문을 나무라는 투로 한 말에 오수길은 ‘학생이가 여적지 못 일어났나 뵈’, ‘누운 지두 달포’ 가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학성이 병에 걸린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고학성이 아들에게 ‘담뱃값 허게’ 꿩을 팔아오라고 시켰다는 말을 통해 아들을 장에 보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약을 사 오도록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조순만이 ‘얼마나 나가’냐고 꿩값에 대해 묻자 오수길은 ‘누가 팔어 봤으야지’라며 가격을 모른다고 말한다. 즉, 조순만도 꿩의 가격을 모른다.

42.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

용모는 성문을 도와주려다가 ‘꿩’을 잡았다는 오해로 인해 재판과 벌금형을 받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오답풀이]

① 용모는 꿩으로 인해 재판을 받으면서 꿩과 같은 해조로 인해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농민으로서의 지난 삶을 반성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용모가 꿩을 넘겨 받은 것은 어린 성문을 돕기 위한 배려이다.

③ 용모가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으며 마을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⑤ 용모가 장에서 꿩을 흥정하려는 모습은 나오지만, 흥정 상대를 찾는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

43.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

[C]의 ‘판사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판사의 위엄이 서린 듯한 말투에 대해 서술자가 서술한 것이고, ‘용모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판사의 말에 입을 못 여는 용모의 모습을 서술자가 서술한 것이다. 즉 서술자가 직접

두 인물의 모습을 서술한 것이므로 다양한 인물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고개를 꾸뻑’ 하는 아이를 ‘여겨’ 본 용모에 의해 그 아이가 ‘고학성이 아들 성문’임이 밝혀지고 있다. 즉 용모의 시각에서 다른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B]에서 용모가 ‘성문이 손에서 썩을 넘겨 받아 든’ 행동에 대해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쥐게 해 주고 싶었기 때문’ 이라고 서술자가 용모의 의도를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D]에서 ‘용모’가 ‘원기 있게 말’하는 모습에 대해 서술자는 ‘술기운 덕도 아닌 것 같’고, ‘기지개와 같은 몸짓으로 믿어야 될 성실’다고 그 발화에 담긴 의미를 추측하여 서술하고 있다.

⑤ [E]에서 ‘나는 용모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므로 작품 속 서술자가 인물을 관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과 관련한 ‘어디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라고 서술자가 떠오른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판사가 자연 보호가 당면 과제임을 부드러운 어조로 말한 것은 울무에 잡힌 썩을 팔려고 한 용모의 행동을 조수 보호 정책에 근거하여 나무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수 보호 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근거로 야생동물의 자율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사의 내용을 통해 판사의 발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용모가 울무에 잡힌 썩을 파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고 여긴 것은 조수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용모가 야생 동물인 썩이 농산물을 해치는 해조인데 보호할 가치가 있냐고 반문한 이유를 늘어난 야생 동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던 당시의 상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④ 야생 동물이 법의 보호를 받듯 자신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고 반발한 용모의 심리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강제적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뻐했다는 당시 상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45.	4	46.	1	47.	1	48.	5
-----	---	-----	---	-----	---	-----	---

이 작품은 1970년대에 규격화된 아파트가 등장하여 새로운 주거 문화가 형성되면서 거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아파트는 거주민들에게 독립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였지만, 공동 주택이라는 특징에 기인하여 집단화된 생활 양식이 이루어지고,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받아 유행에 휩쓸리는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거대하고 규격화된 아파트에 이사를 온 인물인 ‘나’의 시각을 통해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 느끼는 인물들의 정서적 반응과 점차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45.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아파트 사람들이 토요일 저녁

에 쫘치 통조림을 주로 소비하고, 일요일 낮에 돼지갈비를 주로 소비하는 모습을 기이하게 여긴 것은 ‘나’이다.

[오답풀이]

① ‘나’는 부풀어 오른 아내의 마음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명확히 중압을 수 없는 모호한 감정을 은밀히 숨겨 둘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나’가 이사 오면서 생긴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감정을 아내에게 드러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첫째 녀석이 홈런왕을 사달라고 조를 때, ‘나’는 아내가 말없이 웃고만 있는 것을 보고 첫째 녀석과 이미 답합이 된 모양이라고 여겼다. 이를 통해 ‘나’는 아내의 표정을 통해 아내가 첫째 녀석의 요구를 묵인하고 있음을 짐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홈런왕이 무엇인지 묻는 ‘나’의 물음에 첫째 녀석은 똑같은 플라스틱 완구를 들고 있는 대여섯 명의 조무래기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첫째 녀석은 아이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요구가 당당하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아내는 월세를 물고 사는 임대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독립가옥의 셋

방살이와 달리 바깥 계단 쪽의 문만 닫으면 자유스러운 생활 공간이 확보되는 것에 크게 즐거워했다. 이를 통해 아내가 독립가옥의 셋방살이보다 월세를 물고 사는 임대 아파트의 삶이 더 낫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46.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A]는 입주자들이 이사 오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고, [B]는 ‘나’가 느끼는 여릿한 감정, 형언키 어려운 계면적음, 모호한 부끄러움 등의 복잡한 내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A]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③ [A]에서 인물 간에 심화되는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B]에서 인물이 특정 행동을 한 의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A]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심리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47. [출제의도] 인물의 갈등 양상을 이해한다.

‘나’는 유행에 따라 아이들이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아파트가(街) 특유의 속성으로 간주하고 있고, 첫째 녀석이 다른 친구들이 가진 장난감을 갖지 못하면 어느 패거리도 첫째 녀석을 끼워 주지 않는 상황을 겪으며 ㉠을 의식하기 시작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을 느끼는 이유는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이를 소외시키는 배타적 분위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아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며 ‘나’가 실없는 웃음을 흘리고 있으므로, ‘나’가 실없는 웃음을 흘리는 것을 아파트의 편의성을 수용한 자신을 못마땅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자신의 아이들이 억울한 제재를 당할 위험이 없어진 것에 대해 아내의 즐거움은 매우 크다고 한 것에서, 아내는 아파트가 주는 독립성에 흡족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공동생활에 필요한 수칙들이 집마다 붙어 있고, 어머니회 등과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진다고 한 것에서, 집단화되어 가는 아파트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③ 수백 수천의 똑같은 5층짜리 아파트를 보며 차가움, 견고함 등을 의식하는 ‘나’의 모습에서, 규격화된 아파트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을 엿볼 수 있다.

④ 아이들이 모두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고, 첫째 녀석이 매번 새로운 것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에서, 아이들조차 유행에 휩쓸리는 아파트 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1.

3

2.

4

3.

2

4.

3

2103 22-25번

연정이라는 주제와 달이라는 소재가 결합하는 애정 시조들에서 달은 시적 정황이나 함께 언급되는 다른 소재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몇 가지 기능을 발휘한다. 입과 이별하는 배경을 형상화하고, 이미 발생한 이별의 상황과 결합되어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입이 부재한 상황에서 화자와 입을 이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연정이라는 주제와 달이라는 소재가 결합한 시가는 수천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창작되고 향유되었기 때문에 우리 애정 시조들에 나타나는 달의 작중 기능들은 중국의 당시(唐詩)나 일본의 와카[和歌] 등에서도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1. [출제의도] 소재를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이해한다. (다)의 달은 옥적 소리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천수 만한’이라는 화자의 수심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에서 ‘달’은 화자의 내면을 빗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입을 위한 화자의 정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들 쓰자 빙 써나니’를 통해 (가)의 달이 배의 출항과 관련된 것이며, 화자와 입을 헤어지는 달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 준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의 달은 화자가 고향을 떠난 장소인 ‘객창’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두견이’라는 소재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화자의 정한을 돋우고 있다.

④ ‘내 ㅁ음 버혀 내여 더 들을 밍글고저’를 통해 (라)의 달은 화자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며, ‘고온 님 계신 고딕 가 비춰여나 보리라’를 통해 떨어져 있는 입과 화자를 이어 주는 매개물임을 알 수 있다.

⑤ (마)의 화자는 달에게 ‘우리 님이 안졌더냐 누엇더냐’라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있으며, 달을 입의 소식을 알려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작품에 사용된 관용적 표현을 파악한다.

㉔는 (가)의 ‘지국충 소리’, (나)의 ‘두견이만 우지진다’, (다)의 ‘옥적(玉笛) 소리’ 등이 해당한다. ㉕는 (다)의 ‘잠 못 드러 흐노라’가 해당한다. ㉖는 (다)의 ‘천수 만한’, ‘천리’, (라)의 ‘구만리’ 등이 해당한다. ㉗는 (마)의 ‘꽃 갓흔 우리 님’이 해당한다. 하지만 (가)~(마)에 의인화된 사물에 이별의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출제의도]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나)는 ‘돛는 달’과 ‘지는 달’에서 달이라는 소재를 통해 달이 떠서 질 때까지의 시간 경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다)에서는 달이라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을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나)에 ‘달’이라는 시어는 반복되나 연쇄는 나타나지 않으며, (다)에는 반복과 연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와 (다)에서 화자의 시선이 각각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거나,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와 (다)에서 화자가 고통을 견딘다고 추측할 여지는 있으나, 재회를 확신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⑤ (나)의 경우 마지막 구절이 빠진 채 ‘지는 달만’으로 종결되고 있다. 이것은 시조에다 곡을 붙여 부르는 시조창을 위한 가창의 편의와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다)는 그렇지 않다.

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의 ‘털어도 다시 오네’는 입과 이별한 여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 비쳐드는 달빛을 아무리 떨쳐 내려고 해도 떨쳐 낼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지 달이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보기>의 상황은 여인의 입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는 이 글의 (가)처럼 이별하는 순간의 상황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② ‘가련하다’는 달이라는 대상을 접하고 화자에게 일어난 정서이다.

④ ‘서로 달을 바라보아도’는 이 글의 (라)와 (마)처럼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달을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⑤ ‘달빛 좇아’와 ‘임을 비춰보리라’는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두 사람이 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5.

3

6.

5

7.

3

8.

2

2104 17-20번

5. [출제의도] 작품의 의미 파악하기

화자는 자신의 흰머리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청산이 옛 모습을 되찾는 것과 비교하며 한탄하고 있다. 따라서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는 인정하면서도 늙음에 대해 한탄하던 자신을 후회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유흥이 싫고 미워질 만큼 충분히 즐기지 못하였는데 자신의 몸이 늙어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어차피 늙을 수밖에 없다는 자연의 섭리를 인정하고 삶을 즐기므로 써 서글픔을 달래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공평한 하늘 아래 소년들 또한 늙을 수밖에 없다는 자연의 이치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속절없이 빠르게 흐르는 세월에 흰머리가 난다고 인지한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마)에서 ‘ㅁ음’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변하지 않아 ‘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소년’ 시절 이후에도 화자와의 유사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일월’과 ‘장천’은 무한히 지속되는 영원성을 의미하며 화자의 짧은 인생과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청산’이 ‘황산’으로 변하는 것은 화자가 나이를 먹고 늙는 것과 유사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다)에서 ‘적설’은 ‘동풍’이 불기 전에는 화자의 흰머리와 유사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동풍’이 분 뒤에는 모두 녹아 화자의 흰머리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라)에서 ‘소년’은 ‘소년행락’의 시절이 계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유한한 인간인 화자와 유사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소년행락’의 시절을 현재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소년행락’의 시절이 끝난 화자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시어의 특징 파악하기

(나)에서 화자는 ㉔의 변화를 통해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신의 노화를 확인하고 있고, (다)에서 화자는 자연은 변화하지만 ㉕는 변하지 않음을 통해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신의 노화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㉔와 ㉕는 모두 화자가 세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적절하다.

8. [출제의도] 화자의 특징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화자는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백발이 난 것이지 어머니에 대한 근심 때문에 백발이 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화자가 나이가 들어 백발이 난 것은 세월의 흐름이 원인이므로 적

절하다.

③ 화자가 흰머리를 뽑는 것은 자신이 아닌 어머니를 위한 반복적인 행위이므로 적절하다.

④ 화자가 흰머리를 뽑아 젊어 보이고자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흰머리를 보고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므로 적절하다.

⑤ 화자의 어머니가 거처하는 곳은 복당이므로 적절하다.

9.	1	10.	5	11.	3	12.	2	13.	2
----	---	-----	---	-----	---	-----	---	-----	---

 2107 14-18번

9.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의 ‘위의도 거룩하고 예모도 넓을시고’에서 대구의 형식을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나)에는 시간의 대비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다)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인간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⑤ (가)와 (다)에는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1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화자는 <제6곡>에서 ‘종고금슬’로 날마다 즐겨 놀고, 생전에 다 즐기 못하면 후회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화옥’이 있어도 때가 지나면 그 곳에 들 수 없는 것처럼 ‘종고금슬’을 즐겨 노는 일도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함을 ‘화옥’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고조’와 ‘정성’은 옳은 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옳은 소리를 담은 노래가 사대부에게 필요하다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② ‘혜학’과 ‘즐김’을 좋아하나 ‘가혹함’과 ‘거칠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현재를 즐기되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낙이불음 사상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좌상’에 손님이 있고, ‘이 해’가 저물었으니 즐겁게 놀자고 노래하고 있으므로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과 현재를 즐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중심’을 즐길지니 ‘외모’를 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겉치레보다 마음속을 지키는 것이 사대부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나’는 벼슬에서 물러난 ‘이이립’에게 세 벗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벗을 취하는 방법을 아는 이이립이 새로운 때를 만나 나라를 위해 그의 능력을 펼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나아갈 때를 기다리지 못함을 경계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확대경’은 불을 만드는 것으로 마음의 밝은 덕을 밝혀서 지닐 수 있게 하는 사물이다.

④ ‘뿔잔’은 아래로 깊고 비어 있는 생김새로 모든 물건을 포용하는 아량을 의미한다.

⑤ ‘칼’은 예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옛 정승이었던 진평과 여희의 사례를 보아 공평함과 결단력을 의미한다.

1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늪은 중’이 재를 털어 ‘등불’을 밝히고 있을 뿐 ‘늪은 중’이 자연과 교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시’를 읊조리자 ‘말’이 더욱 길게 운다고 한 것은 화자가 대상이 자신에게 반응했다고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초승달’이 그림자를 만들고 ‘술’도 절로 소리를 낸다고 한 것은 화자 자신이 자연과 교감을 하고 있다고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다)에서 ‘이이립’은 스스로의 별호를 ‘서파삼우’라고 지었으므로 그

가 사물을 벗으로 삼아 사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나’가 ‘세 벗’의 의미를 ‘이이립’ 대신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나는 이이립과의 교감을 통해 이이립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출제의도] 소재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하기

좌상에 손님이 있고 술통에 술이 가득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은 화자가 손님을 맞아 풍류를 즐기게 하는 소재이다. 아내가 준 술을 마시고 누우니 가슴속에 불평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은 화자의 근심을 잊게 하는 소재이다.

14.	4	15.	4	16.	3	17.	4	18.	4
-----	---	-----	---	-----	---	-----	---	-----	---

 2110 11-15번

(가) 조우인, 「 매호별곡 」

이 작품은 작가가 상주 지방의 매호에서 자연을 벗하며 한가로이 살아가는 심정을 노래한 가사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 속에 누대와 정자, 초옥삼간 등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벗하며 한적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고 있다. 그러면서 화자는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삶의 소회를 읊고 있다. 이 작품은 자연 풍광에 대한 묘사가 섬세하여 뛰어난 가사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 채만식, 「 다방찬 」

이 작품은 1930년대 경성의 다방 풍경을 중심으로 근대화되어 가는 조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글쓴이는 다방이 머리와 몸이 피로하기 쉬운 도시 생활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글쓴이는 다방을 근대적 문물을 갖추고 있으며 공적 활동과 사적 활동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묘사하는 등 다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조선의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에는 화자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영탄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풀이】

② ㉠의 ‘옥 굵튼 여홀’과 ‘비단 편 듯 흘러 있다’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는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는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화자의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가)에서 화자는 쓸쓸하고 적막한 방에서 책 속의 성현 말씀과 천지신명을 통해,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말고 주어진 것에 순응하며 살아가자고 생각하고 있다.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마자’는 ‘책 속의 성현 말씀’, ‘천지신명’과 관련하여 화자가 지향하게 된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갑 업슨 풍월과 임지 업슨 강산’은 자연을 가리키는 것으로, 화자가 떠나온 곳이 아니라 화자가 현재 지내는 곳이다. 또한 ‘갑 업슨 풍월과 임지 업슨 강산’은 ‘동천’과 대조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상통하는 것이다.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글쓴이는 다방에서 틀어 주는 음악을 명곡이라고 칭하였다. ㉢에서 글쓴이는 다방에서 틀어 주는 웬만한 음악이 귀가 서투른 사람은 못 알아들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다방에서 틀어 주는 음악의 수준이 높다고 여기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풀이】

① ㉠에서는 다방에서 구두를 벗고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사람의 모습은 풍자만화에 그려진 것으로, 글쓴이가 이 사람의 모습이 다방의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㉔에서는 다방이 주로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다방이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현실을 대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이 중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회담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여기고 있다.

14. [출제의도] 작품의 주요 내용을 파악한다.

[A]의 ‘피여 디는 듯 푸르러 이우는 듯/ 온갖 바위 비단된 듯 온 골짜기 구슬된 듯’을 통해 자연이 보여 주는 다채로운 모습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B]에서는 도시 생활에서 다방은 ‘다시없이 고마운 물건이 아닐 수 없다.’라는 내용을 통해 다방이 지니고 있는 효용성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가)에서 ‘시비를 못 듯거니’라고 한 것은 자연에서 지내고 있는 화자가 세속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가)에서 ‘시비를 못 듯거니’가 화자가 특정 공간에서 품게 된 내면의 욕구를 밝힌 것은 아니다. (나)에서 ‘그것을 모르고 도시에 살다니’라고 한 것은 다방에서 즐길 수 있는 안일과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글쓴이가 특정 공간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보여 준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임호정과 어풍대에서 바라본 풍경’에 대해 ‘아니 보아 어이 알꼬’라고 한 것은 주체가 자연을 체험하여 자연이 주체에게 2인칭의 공간이 되면 풍경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지만, 주체가 자연과 관계 맺지 못하면 풍경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	4	20.	5	21.	4	22.	4	23.	1	24.	5
-----	---	-----	---	-----	---	-----	---	-----	---	-----	---

2203 22-27번

(가) 김춘택, 「별사미인곡」

이 작품은 조선 숙종 때 김춘택이 유배지인 제주에서 지은 가사이다. 정철의 가사에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정철의 「속미인곡」에 등장하는 ‘저 각시’와 화자 자신(이 각시)의 처지를 비교하며 임(임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저 각시’와 달리 광한전과 백옥경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임을 한 번도 곁에서 모신 적이 없는 존재이지만,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애절하게 드러내고 있다. 「속미인곡」의 화자인 ‘저 각시’와 대화를 시도하는 특이한 구조를 통해 임을 모셔 본 적이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며,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임을 모시겠다고 반복적으로 나열하는 전개 방식이 인상적이다.

(나) 이정보, 사설시조이 작품은 임에 대한 사랑을 오래도록 지속하려고 하는 화자의 의지를 담은 사설시조이다. 임과 화자 자신이 오리나무와 칠녕쿨로 변신한다는 발상을 통해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겠다는 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임을 향한 애정을 극대화하고 지속하기 위해 몸 바꿈, 즉 전신이라는 현실 초월적인 상상력을 동원하고 있다.

(다) 박지원, 「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

이 작품은 몇 차례의 개작을 통해 완성한 것으로, 서정적 묘지명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박지원은 ‘지금 사람들의 비지류(碑誌類)의 글들은 모두 판에 박은 듯, 의례적이고 상투적이어서 작품 하나만 지어 놓으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 가며 써먹을 수 있으니 그러고서야 그 사람의 정신과 감정 및 전형(典型)을 어디에서 상상해 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당대 묘지명의 상투적 글쓰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당대의 관행과는 다르게 죽은 큰누님에 대한 애뜻한 정과 추억을 담아 이 글을 완성했다. 이 글의 핵심은 상여가 실린 조각배를 떠나보내고서 큰누님이 시집가던 날의 개인적인 일화를 회상하는 대목과 조각배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 새벽 강가의 풍경을 시집가던 날 큰누님의 모습에 빗대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죽은 큰누님에 대한 애뜻한 정과 추억을 절실하게 묘사해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

19. [출제의도]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가)의 화자는 임과 떨어진 상황에서 임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고, (다)의 글쓴이는 죽은 큰누님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다.

[오답풀이]

⑤ (가), (나), (다) 모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20. [출제의도] 시구나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㉔은 글쓴이가 큰누님과 더 이상 대면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별의 슬픔이 고조된 것이지 좌절감이 완화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③ ㉔은 ‘동섯달 바람비 눈서리’라는 시련이 있더라도 임을 사랑하는 자신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21. [출제의도] 화자의 태도나 정서를 이해한다.

[A]의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엇으로 님 사랑할가 /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이룰가’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행동과 재주가 임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는 고전시가에 나타난 변신에 대한 소망을 다루고 있다. (가)는 죽어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전생’과 (나)는 임과의 지속적인 사랑을 위해 다른 존재로 몸을 바꾸는 ‘전신’과 관련이 있다. (가)의 ‘해 다 저문 날’은 화자가 임과 헤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저 각시’가 이동하는 시간이고, ‘동섯달’은 화자가 임과 헤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시련을 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해 다 저문 날’과 ‘동섯달’이 화자가 변신을 바라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① ‘차라리 식여져 구름이나 되어서’를 통해 ‘구름’이 화자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② ‘삼사월 칠녕쿨’은 화자가 상상력을 발휘해 전신하기를 바라는 존재이다.

③ 임이 변신한 ‘나무’와 화자 자신이 변신한 ‘칠’이 거미가 나비를 단단하게 동여매듯 빈틈없이 감겨 있기를 바라는 것에는 서로의 관계가 굳건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바람’은 화자 자신이 전생하기를 바라는 존재이고, (나)의 ‘오리나무’는 화자가 임이 전신하기를 바라는 존재이다.

23. [출제의도] 작품의 맥락을 고려해 삽입 시를 이해한다.

(다)에서 글쓴이와 큰누님이 약속한 내용은 찾을 수 없고, 삽입 시에서 약속을 어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

[오답풀이]

② (다)의 ‘상여와 함께 일제히 떠나는 새벽’, ‘강가에 말을 세우고 저 멀리 바라보니’ 등을 통해 [B]의 시적 배경이 새벽녘 강가임을 알 수 있다. ③ [B]의 2행과 연결할 수 있다.

④ [B]의 4행과 연결할 수 있다.

⑤ [B]의 3행과 연결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보기>에서 선생님은 (다)가 조선 시대 여성의 묘지명을 서술하는 상투적인 관행(불출의 원리, 종인의 원리, 의가의 원리)에서 벗어나 고인과의 일화 등을 통해 개인적인 정과 추억을 담은 글이라고 언급하며, (다)에서 상투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내용을 찾으라고 안내하고 있다. <보기>의 ‘고인의 행적 중 살림을 잘해 사후에도 가족들을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일처럼 가문에 공헌한 것만을 골라서 칭송했습니다.’를 통해 큰누님의 남편이 큰누님이 죽은 후 생계가 어려워 이주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남편의 무능력과 가난을 드러내어 당대의 서술상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㉔는 적절한 이해이다. ㉔는 죽은 큰누님과 관련한 일화이고, ㉔는 조각배가 떠나는 새벽 강가의 풍경을 시집가던 날 큰누님의 모습에 빗대는 내용으로 모두 당대의 서술상의 관행에서 벗어나 죽은 큰누님에 대한 개인적인 정과 추억을 담은

내용이므로, 적절한 이해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다)에서는 큰누님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아니고 가문에 대한 자량과 큰누님에 대한 애뜻한 정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도 아니므로, ㉔는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25.	5	26.	4	27.	4	28.	2
-----	---	-----	---	-----	---	-----	---

 2204 23-26번

25.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억만 창생을 사치케 하닷말가’에 의문의 형식이 나타나 눈이 온 경치를 아름답게 생각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고, ‘맹영이 잇도던들 날도 아니 신선이라 할 거이고’에 의문의 형식이 나타나 자신의 모습을 신선과 같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의 ‘평생에 위군부애정이야 일각인들 잇으리까’에 의문의 형식이 나타나 군부를 떠올리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 파악하기

(가)에서 화자는 ‘천지만물 중’에 ‘네 홀노’ 다른 ‘가마괴’를 보고 ‘소의 호상으로 개복들 하야스라’라는 권고의 말을 건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에서 ‘백구’들은 화자에게 ‘인간 시비를 모르고 늙으소서’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가)에서 화자는 눈이 온 경치를 보고 ‘옥룡’을 떠올리며 아픔을 초극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에서 자연은 화자가 고통을 잇는 공간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에서 화자는 ‘율령천’에서의 생활을 언급하고 ‘세상의 번우한 벗이 이 뜻 알까 하노라’라고 하며 강호에서의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 자연이 화자의 번민이 심화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화자는 ‘헌창’을 열어 설경을 바라보며 ‘두옹’이 된 ‘청산’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에서 자연은 화자가 감상하는 대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화자는 ‘율령천’에서 ‘아침밥’을 먹고 ‘긴 조오름 내’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를 통해 (나)에서 자연은 화자의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에서 화자는 ‘늪은 가지’에 쌓인 눈을 통해 감흥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가)에서 자연은 화자의 흥취를 유발하는 공간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에서 화자는 ‘긴 감소’에서 ‘뉘대’를 들고 자연을 즐기고 있다. 이를 통해 (나)에서 자연은 화자의 흥취를 유발하는 공간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화자는 ‘설리’에서 ‘신선’을 떠올리며 초월적 세계를 연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에서 자연은 화자가 신선을 동경하는 이념이 드러나는 대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에서 화자는 ‘대산 상상봉’에 올라 ‘위군부애정’을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에서 자연은 화자가 지닌 사대부로서의 이념이 드러나는 대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A]의 ‘만가 천향’에 ‘낭자’한 ‘경요’를 ‘습유를 아니 하니’라고 하였으므로 구슬을 줌은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내 집도 찬란하니’에서 화자의 집이 눈으로 덮여 빛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집마다 경실이오’에서 집들이, ‘만가 천향의 경요가 낭자하대’에서 마을의 거리가 모두 눈으로 덮여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말발의 은잔은 개개히 두렷하니’에서 눈이 쌓인 길 위에 말발굽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수레바퀴 흰 띠는 쌍으로 비껴가고’에서 화자가 눈이 내린 거리에 나란히 나 있는 수레바퀴 자국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9.	1	30.	4	31.	2	32.	3	33.	5
-----	---	-----	---	-----	---	-----	---	-----	---

 2207 22-26번

29.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석양’, ‘달’ 등을 통해, (나)는 ‘서산에 해 저 간다’는 표현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와 (다)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나)와 (다)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지 않다.

④ (가)의 ‘녹초변’과 (나)의 ‘백구’는 색채어라 할 수 있으나, (다)에는 색채어가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 (나), (다) 모두 공간의 이동을 통한 대상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았다.

30.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잇는 공간을 ‘경요굴 은세계’라고 표현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곳을 찾을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니 이 상황을 ‘남에게 전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므로, ‘은세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소 먹이는 아이들’이 ‘흥이 겨워 피리’ 부는 것을 듣고, ‘물 아래 잠’겨 있다가 ‘잠을 깨어 일어날 듯’한 ‘용’과 ‘제 집을 버리고 반공에 솟아 뜰 듯’한 ‘학’을 떠올리면서 강변에서의 흥취를 표현하고 있다.

② ‘소선 적벽’에서는 ‘가을 칠월’이 좋다고 했으나 ‘팔월 보름달’을 모두가 칭찬한다고 말하면서, 달의 아름다움에 취해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진 ‘적선(이태백)’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달’이 ‘술’ 위에 걸린 풍경에서 느끼는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③ ‘공산’에 ‘삭풍’이 불고 ‘눈’이 오니, 마치 조물주인 ‘천공’이 ‘옥’으로 꽃을 만들어 ‘만수 천림’을 꾸며낸 것 같다며 산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예찬하고 있다.

⑤ 책을 읽고 잇던 화자가 책 속의 ‘성현’과 ‘호걸’에 대해 생각하면서 ‘시운’이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는 것이 애달프다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31. [출제의도] 소재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하기

㉠은 자연 속 생활의 만족감이 드러나 잇는 소재이며, ㉡은 버려야 할 세속적 가치를 표현하고 잇는 소재이다. 따라서 ㉠과 달리 ㉡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대상이다.

32.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있이 매우 늦게 돈지만, 돈기만 하면 곧 그늘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은 윤상군이 등용은 늦게 되었지만 큰 성취를 이루었다는 내용과는 연결할 수 있지만, 벼슬에 오르기까지 직무에 조심하면서 충실히 임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불이 마른 것에 잘 불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은 성질이 같은 것끼리 서로 찾아가는 이치를 설명하고 잇는 것이므로 밤나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잇는 윤상군이 밤나무가 잇는 곳을 선택하여 집을 구한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② ‘밤나무는 늦게 나고 기르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늦었다고 할 정도로 늦게 벼슬에 나아간 윤상군의 삶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④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간 것’은 ‘그 기틀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성취하는 것이 뒤에는 쉬’운 밤

나무의 성질로, 등용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일단 등용이 되고 나서는 하루 동안에 아홉 번이나 자리를 옮겨 대신의 지위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윤상군의 삶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⑤ ‘밤나무의 성장함’은 윤상군이 출세하여 영화롭게 된 것과, ‘밤을 수확하여 간직하는 것’은 윤상군이 은퇴하는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다)에서 정자의 이름을 ‘울정’이라고 지은 것은 윤상군이 밤나무를 좋아해서이고, 작가는 등용이 늦었지만 큰 성취를 이룬 윤상군이라는 인물을 통해 ‘차고 이지러지고 줄어들고 보태는’ 모든 사물에 공통되는 이치를 말하고 있지만, 당시 현실을 비판하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화자는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귀를 씻었다는 고사를 인용하며 그의 기개와 품행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화자의 시각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화자는 ‘세사’가 ‘구름’처럼 험하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며 ‘마음에 맺힌 시름’을 적게 만들고 싶어 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속세를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자연물인 ‘백구’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날지 말고 자신과 함께 속세의 일을 잊자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물을 몰아일체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고깃배가 떠 있는 삶의 터전인 ‘어촌’이 마치 이상향의 세계인 ‘무릉’과도 같다고 말하며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상의 공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인식을 알 수 있다.

34.	3	35.	3	36.	4	37.	3	38.	4	39.	2
-----	---	-----	---	-----	---	-----	---	-----	---	-----	---

2210 18-23

(가) 최현, 「명월음」

이 작품은 임진왜란 때 최현이 지은 연군 가사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전란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상술하기보다 전란으로 인한 비극적 심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피란길에 오른 임금을 구름에 가려진 달에 비유하여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임금을 그리워 하는 마음, 임금이 선정을 베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등을 표현하였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뜬 구름과 떼구름으로 인해 희미한 한줄기 달빛마저 아득해진 상황에서도 단심을 지켜 밝은 달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다는 염원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서 뜬구름과 떼구름은 명월을 가로막는 것으로, 전란의 현실과 관련된 부정적 세력을 의미한다. 작가는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우국과 연주의 심정을 서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이 작품은 박인로의 연시조이다. 박인로는 17세기를 대표하는 뛰어난 문인이면서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에는 전란의 경험과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데,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도 있고 전란 이후의 혼란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도 있다. 이 작품은 전란 이후에 작가가 자연 속에서 지내면서 창작한 것으로, 바위의 곧고 높은 모습 등을 예찬하면서 바위만도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다양한 표현 기법을 동원하여 바람직한 가치의 회복을 회구하는 작가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윤오영, 「염소」

이 작품은 윤오영의 작품 가운데 수작으로 꼽힌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어린 염소와 그 염소의 주인과 이를 관찰하는 작가 자신을 차례로 조명하고 있다. 처음에는 염소에 대한 회화적 묘사를 통해 염소에 대한 작가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는 염소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일을 상상하고 염소를 팔러 다니는 주인에 대해 떠올린 작가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 염소와 그 주인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자신과 연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작가 자신의 운명, 염소를 팔러 다

니는 주인의 운명, 염소의 운명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작가는 염소의 모습에서 출발하여 존재의 운명론에 대한 철학적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작품의 문학적 예술성을 배가하고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4. [출제의도] 글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의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리’ 등에서, (나)의 ‘가히 사람 이면서 이 돌만도 못하랴’ 등에서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가)와 (나) 모두,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35.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가)의 ‘본색’은 달이 가진 본래의 성질, 즉 달의 밝고 환한, 광명을 가리킨다. (가)에서 화자는 ‘풍운’이 변화하더라도 달의 ‘본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단심’을 지켜 밝은 달을 볼 수 있기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다. (가)에서는 달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본색’을 연결하여 ‘단심’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에서는 운명과 본성에 따를 것을 강조하는 페이터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글쓴이는 염소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주인의 뒤를 충충 따르고 주인이 저를 흥정하고 있는 동안 주인 옆에 온순하게 충실히 기다리고 서 있는 것처럼, 운명을 따르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6.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가)의 화자는 달의 빛이 희미하고 아득하여 ‘금작경’을 닦아 내어 벽위에 걸어 두었다. 그런데 화자는 이 ‘금작경’이 ‘명월’과 달리,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출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화자는 ‘금작경’이 ‘제 몸만’을 비추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37. [출제의도] 시상 전개에 대해 파악한다.

(나)의 <제3수>의 중장과 종장에서 화자는 변함없이 옛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는 바위를 벗 삼아 앉아 있어 세상에 이익되는 세 벼를 사귄 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바위를 벗으로 삼고 앉아 있는 화자의 행위가 세상에 이익되는 세 벼를 사귄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화자의 태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에서는 (가)와 (나)가 전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되었으며 부정적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 ‘심술궂은 뜬구름’이 ‘가리’고 ‘떼구름 미쳐’ 난다고 한 것은 구름이 달을 가리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에서 ‘구름 깊은 골짜기’는 높이 곧게 서 있는 바위들이 자리한 곳으로, ‘구름 깊은 골짜기’에 ‘구경거리 많’다고 한 것이 전란으로 인한 참담한 현실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고자’ 한다는 것은 전란으로 인한 부정적 현실, 임금이 피란길에 오른 참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구름’은 전란의 현실과 관련된 부정적 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곧게 선 저 얼굴이 고칠 적이 없’고 ‘탁연 직립하’다고 한 것은 바위의 곧고도 변함없는 모습, 높고도 곧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바위를 인격을 지닌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이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품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작품의 구성을 고려해 작품의 내용을 파악한다.

염소가 ‘다투어 푸른 잎을 뜯어 먹듯’ 한다고 표현한것이 작가가 염소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존재에 대한연민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염소가 ‘다투어 푸른 잎을 뜯어 먹듯’ 한다고 표현한 것은 염소가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보기>에서 설명한 글의 구성을 고려하였을 때 작가가염소와 자신을 동일시한 부분은 ㉞가 아니라

㉞이다.

40.	1	41.	3	42.	3	43.	2	44.	1	45.	3
-----	---	-----	---	-----	---	-----	---	-----	---	-----	---

2303 22-27번

(가) 구강, 「 총석곡 」
이 작품은 회양 부사로 재직하던 작가가 관동 팔경 중 하나인 통천의 총석정 일대를 기행하고 지은 국문 가사이다. 총석정 탐승에 대한 기대, 총석정 주변 기암괴석에 대한 형용, 관동 팔경 중 총석정이 가장 뛰어나다는 찬사, 여정을 마무리하며 인재를 찾겠다는 소회 등을 진술했다. 총석정 주변에 가득 들어선 돌기둥의 뛰어난 경치를 형용하면서 이를 완상하는 감흥을 다양한 고사와 결부시켜 노래하고 있다. 사실적이면서 개성이 넘치는 묘사와 함께 기암괴석을 집중적으로 노래한 점이 돋보인다.

(나) 장복겸, 「 고산별곡 」
장복겸의 문집인 옥경현유고 에 수록된 이 작품은 총 10수의 연시조이다. 청산, 녹수, 석양, 신월 등을 주요 소재로 삼아 시름을 잊고 자연과 더불어 소일하면서 한가롭게 지내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작가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정자인 ‘불고정’에서 노닐며 풍류를 즐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수>에서는 청산과 녹수가 어우러진 공간과 신월이 돌아나는 시간대를 설정하여 술을 앞에 둔 흥취를 드러내며 시름을 달래고 있다. <제4수>에서는 자연에 한거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남’과의 대립을 통해 부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남’은 종장의 표현을 통해 ‘손’의 성격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즉 화자의 삶을 시종 지켜보며 그에 대해 온당한 판단을 내리는 이가 아니라, 화자의 삶의 한 단면이나 겉모습만을 살펴면서 이에 대해 옳다 그르다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다. 화자는 ‘남’을 ‘망령난’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삶을 옹호하고 있다. <제6수>에서는 풍류를 즐기는 수단인 술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공간에서 마시겠다는 뜻을 표출하면서 ‘물’과 ‘피’ 및 ‘달’을 언급하고 있다. <제6수>에서는 어떠한 시름이나 갈등의 표출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에 만족하며 풍류를 즐기는 삶을 흥겹게 노래하고 있다.

(다) 백석, 「 동해 」
백석은 1936년부터 1938년까지 함흥의 영생 고등 보통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했는데, 이 작품은 작가가 함흥에서 발표한 네 번째 수필이다. 백석의 수필 중에서 바다를 제목으로 삼은 것은 이 수필이 유일한데, 그는 이 작품에서 함흥과 인접한 동해의 매력을 전하며 낭만과 풍류의 정서를 밀도 있게 드러내고 있다. 무더운 여름 맥고모자를 쓰고 맥주를 마시며 거리를 거니는 백석의 모습은 날아갈 듯 가볍고 흥겨운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네’라는 종결 어미로 끝나는 문장의 독특한 어조가 이러한 느낌을 고조시킨다. ‘이렇게 맥고모자를 쓰고 빠루를 마시고’라는 구절은 다양한 물상들을 나열하는 연상을 낳고 있다. 동해의 안주에 대한 생각은 전복과 해삼을 거쳐 제주 배에 대한 연상으로 이어지며, 제주 색시에 대한 연정은 자신과 관계있는 여러 지인들에 대한 생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40. [출제의도] 글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의 ‘어떠한 도끼로 용이히 깎았으며 / 어떠한 승묵으로 천연히 골랐는고’, ‘끈 없이 묶었으되 틈 없이 묶었으며 / 풀 없이 붙였으되 흔적 없이 붙였으니’ 등에서, (나)의 ‘한 병은 물에 놀고 또 한 병 피에 놀며’ 등에서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오답풀이]
㉞ (가)의 ‘한 묶음씩 두 묶음씩 세운 듯 누인 듯’, (다)의 ‘제주 배 아즈맹이 몸집이 절구통 같다는 둥’에서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상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1. [출제의도] 작품과 관련한 삽화를 고려해 작품의 내용을 파악한다. (가)에 천상의 인물과 지상의 인물이 협력하여 총석정 주변의 기암괴석을 만들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우씨(하나라 우임금)’나 ‘영장’ 등을 언급한 것은 아무리 솜씨 좋게 돌을 다듬어도 총석정 주위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기암괴석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바람 불면 못 보려니 몰아라 어서 보자’에서 알 수 있다.
② ‘올라 보니 후면이라 전면으로 보오리라 / 배 대어라 사공들아 풍랑이 일지 않아 / 총파로 돌아 저어 총석 전면 보게 하라’에서 알 수 있다.
④ ‘기괴히 꾸뻐다가 세인의 노리개 되야 / 시 짓고 노래하여 기리기만 위한 것인가’에서 알 수 있다.
⑤ ‘물로는 동해수요 피로는 금강산과 / 폭포로는 구룡이요 돌로는 총석이라’에서 알 수 있다.

42. [출제의도] 작품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제6수>에서 ‘술’은 ‘물’, ‘피’, ‘달’의 자연과 어울리며 풍류를 즐기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제1수>의 중장은 해가 저물 무렵에 새 달이 뜨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신월’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43. [출제의도] 서술 방식에 대해 파악한다.
(다)는 친구에 대한 생각이 술과 안주에 대한 연상으로 이어지고, 안주에 대한 생각이 제주 배에 대한 연상으로 이어지며, 제주 배에 대한 생각이 여러 지인들에 대한 연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연상을 통해 동해의 다양한 안주와 제주 배를 타고 온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 지인들의 사연을 열거하며 동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44.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㉞은 화자가 은거하는 곳을 청산과 녹수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형상화하는 내용이고, ㉞은 아이들이 제주 배의 움직임에 따라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나)에서 화자가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며 한가롭게 지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제1수>는 혼자서 술을 마시며 시름을 푸는 상황이고, <제4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손쉽게 평가하는 ‘남’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며 한가롭게 지내는 삶의 자세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② ‘장관을 다한 후의 다시금 혼자 말이 / 괴외기결 하온 사람 이같은 이 있다 하면 / 천 리를 멀다 말고 결단코 찾으리라’는 총석정 일대의 훌륭한 경치와 비견할 만한 인재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서 나라에 도움을 주겠다는 목민관(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벼슬아치)으로서의 역할을 떠올리는 표현이다.
④ ‘달에 논들 어떠리’는 달과 어울려(달빛을 감상하며) 풍류를 즐기겠다는 흥취를 드러낸 것으로, 달이라는 자연물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6.	3	47.	2	48.	5	49.	4	2304 18-21번
-----	---	-----	---	-----	---	-----	---	-------------

46.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아희야 걱정마라’에서, (나)의 ‘아희야 술 부어라’에서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7.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㉞에서 ‘발이 하 성기’다는 것은 화자가 거하는 거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뿐 화자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㉞에서 화자는 ‘금곡’, ‘서호’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며, 배를 타고 이동한 여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㉞에서 화자는 ‘편안’한 ‘오늘’과 달리 ‘동서’로 ‘분주’하여 ‘주야’를

물랐던 과거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㉔에서 화자는 ‘존계’가 어느새 운다고 시간의 경과를 언급하며 할 일이 전혀 없는 처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㉔에서 화자는 시야에 들어온 ‘흰 듯 검은 것’이 구름이라는 것을 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8.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 및 의미 이해하기
(가)에서 ㉔는 ‘짧으나 짧은’ 시간으로 꿈에서 만난 ‘님’에게 ‘사설’을 ‘사뢰나 묻내 사뢰어’ 아쉬움이 드러나는 시간이고, (나)에서 ㉔는 ‘조흔 경치’에 ‘놀지 안코 무슴흐’냐고 하며 만족감이 드러나는 시간이므로 적절하다.

4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하기(나)에서 ‘사람으로 새만 못 흐여 한’이라는 것에는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한 사대부의 고뇌가 드러나고 있으나 (가)에서 ‘풍우성’에 잠을 깨고 ‘한숨 짓’는 것에는 자연과의 대비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사립문’이 본래 없는 ‘강촌의 와실’에는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대부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님 그리’ 짓은 ‘소매’를 ‘별’으로 말린다는 것에는 임금을 향한 사대부의 그리움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농부의 ‘노랫 소리’를 아름답다고 하며 ‘태평곡’으로 화답하는 것에는 향촌 공동체의 구성원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대부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강변’을 걸으며 ‘만랑이 더욱 도타’고 하는 것에, (나)에서 취한 잠에서 ‘늦게 깨어 강가’를 바라보는 것에 자연을 즐기는 사대부의 여유로운 일상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50.	1	51.	4	52.	2	53.	3	54.	1	55.	1
-----	---	-----	---	-----	---	-----	---	-----	---	-----	---

2307 26-31번

50.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가)와 (나)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는 글쓴이가 우연히 산의 모습을 거꾸로 보게 된 경험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 (나), (다) 모두 과거의 삶을 후회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③ (가), (나), (다) 모두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가), (나), (다) 모두 옛 성현의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

⑤ (가), (나), (다) 모두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5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제7수>에서 화자는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밋기’를 달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표현으로, 상대와의 동질감을 표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제1수>에서는 ‘인사는 달라졌구나’와 ‘못내 슬허 하노라’라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세간의 존멸’에 대한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제4수>에서는 ‘산화는 물의 띄고 물새는 산의 운다’에서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자연 속에 있는 화자의 시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③ <제5수>에서는 ‘갈매기’를 신의가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며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제7수>에서는 <제5수>의 ‘거문고’를 다시 언급하며 <제5수>의 거문고를 비스듬히 들고 산수를 회롱하던 것에서, <제7수>의 거문고에 대한 흥이 다해 낚시터로 내려가는 것으로 화자의 행위가 변화했음을 드러낸다.

52. [출제의도] 시상 전개 방식 파악
[A]에서 화자는 ‘봄옷’을 입고 자신이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자연으로 가고 있고, [C]에서도 화자는 ‘베옷’을 입고 ‘낚시터’라는 자연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A]의 ‘봄옷’과 [C]의 ‘베옷’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대조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의 ‘평생 품은 뜻’은 [B]의 ‘아무런 욕심 없이 탈속의 마음’으로 ‘산수에 깃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B]의 ‘산수에 깃들인 채’ 사는 삶의 양상이 [C]의 ‘낚싯대’를 쥔 채 ‘쉴두건 베옷’을 입고 ‘낚시터’로 내려가는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④ [B]의 ‘욕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D]에서 ‘낚시 놓고 배회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D]의 ‘고기 수’를 썰 정도라는 표현에서 물의 맑은 이미지가 나타나 있고, [E]에서도 ‘누대’의 경치가 ‘깨끗하’여 ‘물’과 ‘하늘’이 ‘한 빛이 되’었다는 표현에서 맑은 자연의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나)의 ‘백수’는 흰머리를 뜻하는 말로, 화자가 나이가 들어서야 자연을 찾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가)의 ‘십 년’은 화자가 속세에서 벼슬을 하던 시기로 볼 수 있을 뿐, 화자가 자연을 찾아오기 위해 노력한 세월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가)의 화자는 벼슬을 마치고 돌아온 ‘고향’에서 ‘산천’이 ‘의구하’다고 말하며 자연이 변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고향의 자연은 화자에게 익숙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나)의 화자는 자신이 찾아간 자연을 ‘임자 없이 버려져 있’던 공간이자 ‘천지가 감췌’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임자가 없었다는 점, 감췌져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공간은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했던 곳으로 볼 수 있다.

④ (가)의 ‘어즈러운 기별’은 ‘세상’의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화자는 이를 ‘몰라 하노라’라고 말하며 이와 단절하고자 한다. 또한 (나)의 화자는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중요한 대상이 아닌 ‘뜬구름’으로 인식하며 단절하고자 한다.

⑤ (가)에서 화자는 ‘산수간’에 누워 한가로이 자연을 즐기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누대의 맑은 경치’를 바라보며 자연을 즐기고 있다. 이를 통해 (가)와 (나)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54. [출제의도] 시구, 구절의 의미 파악
㉔에서 화자는 낚싯대를 놓고 물결을 굽어보는데, 물에는 하늘의 모습이 비쳐 구름 그림자와 하늘빛이 물속에 잠겨 있고 이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구름 위에서 뛰노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㉔의 화자는 물에 비친 하늘의 모습을 보고 반응했다고 할 수 있다. ㉔에서 글쓴이는 마루에서 모로 돌아눕다가 산의 모습을 다르게 보게 된다. 따라서 ㉔의 글쓴이는 산의 모습이 평소 보던 것과 달리 보인 것에 대해 반응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㉔는 달리 보인 산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하며 산의 모습을 본 것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㉔는 하늘의 모습을 물에서 본 것이므로 하늘과 물의 변함없는 모습을 본 것에 대한 반응이라 볼 수 없다.

③ ㉔는 하늘이 물의 모습을 닮아 변해 가는 것과 관련이 없으며, ㉔ 또한 산이 주변의 모습을 닮아 변해 가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④ ㉔는 물에서 하늘의 모습을 보는 것이므로 그 둘이 분리되어 보인다고 할 수 없으며, ㉔는 산이 선명하게 보인 것일 뿐 산과 주변이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⑤ ㉔는 물에서 하늘의 모습을 보는 것이므로 하늘과 물이 뒤바뀐 것은 아니며, ㉔는 산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다르게 본 것이므로 과거와 달라진 현재 산의 모습을 보았다고 할 수 없다.

5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팔베개를 하고 누워’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는 것은 글쓴이가 빨래를 한 후 쉬기 위해 한 행동이다. 글쓴이가 산의 모습을 새롭게 본 것, 즉 새로운 것을 경험한 것은 ‘모로 돌아누워’ 보았을 때의 일이다.

[오답풀이]

② ‘사람’과 ‘사물’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은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으므로 미지의 것을 경험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③ ‘아무개 하’는 것은

대상을 ‘굳어 버린’ 존재로 보게 하므로 기존의 지식으로 해석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아름다운 비밀’은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에 해당하므로 대상을 진심으로 이해할 때 ‘찾아낼 수’ 있다.

⑤ ‘시들한 관계’를 ‘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56.	5	57.	2	58.	3	59.	4	60.	3	61.	4
-----	---	-----	---	-----	---	-----	---	-----	---	-----	---

2310 18-23번

(가) 이진유, 「속사미인곡」

조선 영조 때 사대부인 이진유가 유배지인 추자도에서 지은 가사이다. 이처럼 유배의 경험을 바탕으로 씌어진 가사를 일러 유배 가사라고 한다. 유배 가사는 보통 ‘연군의 정서’와 ‘유배 생활의 시련’이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작품이 구성된다. 「속사미인곡」은 다른 유배 가사에 비해 유배 생활의 시련이 자세하게 서술된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미를 갖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서사－본사－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사는 유배지까지의 여정, 나주에서의 유배 생활, 추자도에서의 유배 생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문에는 본사의 일부와 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자신의 죄 없음과 억울함, 임을 향한 그리움, 임의 사랑을 회복하여 그와 재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표현되어 있다.

(나) 이복길, 「오련가」

조선 후기 사대부 이복길이 지은 연시조이다. 작가는 남성 사대부이나 내용은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의 간절한 심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작가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내용을 진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작품은 총 10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1 ~ 5수(전 5곡)와 6 ~ 10수(후 5곡)가 각각의 완결성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은 이른바 ‘꼬리 따기’라는 독특한 구성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앞 수 종장의 마지막 구절 또는 단어를 다음 수 초장에서 이어받아 시상을 전개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다) 박지원, 「답홍덕보서 제이」

조선 후기 실학과 문인인 박지원이 그의 벗이자 선배였던 홍대용에게 답장으로 보낸 편지이다. 홍대용 역시 실학파의 대표적 학자로서 ‘덕보’는 그의 자(字 :과거 성인이 된 남성에게 새로 지어 준 이름)이다. 제목의 뜻은 ‘홍덕보의 편지에 두 번째로 답장한 글’이다. 박지원은 여러 작품을 통해 우정의 소중함을 역설하였는데 이 글도 그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 작가는 참된 벗 사귀를 모르고 명성·이익·권세를 좇아 사람들과 어울렸던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면서 참된 벗 사귀의 의미와 그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참된 벗 사귀이 어려운 당대의 세태도 비판하고 있다.

56. [출제의도] 글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 (나)는 임을 만나고 싶은 마음, (다)는 참된 벗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다루고 있다. (가)는 연군의 마음을 바탕으로 쓴 유배 가사이므로 여기서 임은 임금을 상징하는 말로 이해된다. (가), (나)의 임과 (다)의 참된 벗은 모두 만나고 싶지만 만나기 힘든 대상이며 그러한 상황에 대해 (가),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가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세 작품은 공통점을 갖는다.

5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에 제시된

자료를 참고할 때 ‘일월 같은 ~ 굵어볼까’는 해와 달처럼 밝은 지혜를 지닌 임금이 자신의 죄 없음과 충정의 마음을 알아주리라는 작가의 믿음과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유배지에서 생활하는 자신의 일상에 임금이 관심을 보여 준 것을 감사해하는 마음에서 작가가 그와 같이 표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 ‘눌 위해 단장할꼬’에서 ‘단장’은 임에 대한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로, 작가의 연군지정을 뜻하며 ‘내 얼굴 고왔던지’, ‘유한한’, ‘치마’ 등의 표현과 함께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다. 이 구절에서 작가는 의문의 형식을 사용해 아름답게 단장해도 보아 줄 임이 없는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연군지정이 임금에게 전해지기 힘든 상황을 부각했다.

⑤ ‘행여 고치시기를 날마다 고대하노라’에는 유배된 자신의 상황을 고칠 수 있는 주체가 임금이므로, 자신의 상황이 임금에 의해 변화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심정이 담겨 있다.

58. [출제의도] 시상의 흐름을 파악한다.

<제2수>의 종장에서는 화자의 슬픈 마음(‘진주’)과 임을 향한 정성이 담긴 물건(‘진짜 진주’)을 임에게 보내고 싶은 소망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제3수>의 초장에서 화자는 ‘아실까’라고 물으며 소망 실현에 대한 확신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소망 실현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제1수>에서는 ‘임 생각 → 꿈을 꿈→ 꿈속에서 임과 만남 → 잠에서 깨어남’의 순서로 시상이 전개된다. 이는 화자에게 일어난 일이 시간 순으로 제시된 것이다.

④ <제3수>의 종장에서 화자는 임의 뜻이 자신과 다를 경우 자신을 향해 크게 웃을 것이라며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제4수>의 초장에서는 ‘대소 마시고’라고 하며 <제3수>의 종장에서 가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59.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현재 상황에서 만나기 힘든 임을 꿈속에서 만나고 있다. 임을 만나고 싶은 현실의 소망이 꿈속에서나마 잠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이루기 힘든 화자의 소망이 ‘꿈’에 투영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가)의 ‘닭’과 (나)의 ‘피꼬리’ 모두 화자의 꿈을 깨워, 꿈속에서 화자와 임이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이다.

② (가)의 ‘치마’는 임을 위해 단장하려고 화자가 지은 것이다. (나)의 ‘진짜 진주’는 임에게 보내고자 하는 화자의 정표이다. ‘치마’와 ‘진짜 진주’ 모두 임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담고 있는 소재라는 점에서 성격이 같다.

③ (가)와 (나)의 ‘얼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화자의 처지와 관계가 없다. (가)의 ‘얼굴’은 ‘못 여자’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화자의 홀륭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의 ‘얼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일촌간장’과 대비되는 시어로 ‘일촌간장’은 화자의 마음을, ‘얼굴’은 육신을 뜻하는 말로 이해된다.

⑤ (가)의 ‘옥루’는 화자와 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꿈속의 공간이므로, 죽음 이후에 임과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60.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㉞에서 ‘죽어 진토가 되다’(죽어 먼지가 된다 한들)는 상황을 가정한 표현이다. 이 표현은 그다음에 나오는 ‘이 마음 썩을손가’와 연결되어, ‘내 육신은 죽어 먼지가 되어도 임을 향한 내 마음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부각한다. 따라서 ㉞이 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 ㉞에는 ‘명성’과 ‘비방’, ‘송곳 끝’과 ‘산더미’가 대조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허황된 명성을 추구했던 젊은 시절 자신의 삶에 대해 명성은 보잘것없는 데 비해 그것이 초래한 사람들의 비방은 매우 심했다고 말하고 있다.

⑤ ㉮은 사람들이 이익과 권세를 쫓다가 낭패를 보는 상황을 기름을 가까이했다가 옷만 더럽히는 상황에 비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이익과 권세라는 세속적 가치를 쫓는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적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다)에서 글쓴이는 종놈이나 나무하느 아이와 같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 가운데서 참된 벼를 찾으려 했으나 그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 결국 참된 벼를 찾지 못한다. 그 결과로 글쓴이가 느낀 안타까운 마음이 ‘어찌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 신분이 낮은 이들조차 글쓴이와 참된 벼 사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은 작품에 나와 있지 않다.

고전소설

1.	1	2.	5	3.	1	4.	2	5.	4	2103 11-15번
----	---	----	---	----	---	----	---	----	---	-------------

(가) 일연, 「 선율 환생 」

선한 행위를 하면 극락에 가고, 악한 행위를 하면 지옥에 간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불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삶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 일연의 「 삼국유사 」에 수록되어 있는 (가)의 설화가 바로 그런 이야기이다. 지옥 이야기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 이 설화를 통해 불교가 성행했던 시기에 지옥의 가르침이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전달되었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나) 작자 미상, 「 설홍전 」

(나)는 설홍의 무용담을 엮어 놓은 영웅소설이다. 이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주인공이 여러 차례 시련을 겪는 플롯을 제시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영웅적인 활약상을 제시하고 있다. 설홍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산중에 버려져 죽을 위기에 처한다. 이때 봉황이 나타나 환생초를 물고 와 설홍을 소생시키고 나무 열매를 물어다 주며 밤에는 날개로 감싸 키운다. 그러던 중 봉황이 사라지고, 설홍은 천도를 도적질했다는 저승의 판단에 의해 저승으로 불잡혀 와 염라대왕에게 문초를 당한다. 설홍은 염라대왕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풀려나 이승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는 계속 여러 고초를 겪는다. 주인공이 겪는 시련을 다양한 플롯을 통해 제시한 점은 이 작품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 [출제의도] 설화와 고전소설의 서술 방식의 특징을 비교한다.

(가)는 망덕사, 저승, 무덤, 여인의 집 등의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가)는 이들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저승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설홍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철성이 높아 하늘에 닿는 듯하고, 한 궁궐이 있으되 극히 엄숙하더라.’, ‘염라대왕이 ~ 분주 창황하여 오락가락하는지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가)의 선율이 불경을 완성시킨 후의 경과를 제시하여 불경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그것을 돌려 읽으며 재앙이 물러가기를 빌었다는 것은 소재인 불경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③ (가)에서 선율은 염라대왕이나 여인과 대결하고 있지 않다.

④ (가)에서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장면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2.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저승에서 한 여인이 선율에게 참기름과 베를 불경을 완성하는 데 써달라고 시주를 한다. 선율은 무덤에서 나와 여인의 집에 가서 참기름과 베를 찾아 여인의 바람대로 명복을 빌어 준다. 그러자 여인의 혼이 와서 고뇌에서 벗어났다면 선율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를 당시 사람들이 듣고 모두 놀랐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율이 여인에 관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음을 나타낸다. 여인이 시주를 하여 불경 완성에 도움을 줌으로써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났음을 사람들에게 알려 준 것이다.

[오답풀이]

① 선율은 다른 승려의 도움으로 무덤에서 나왔다.

② 선율은 여인에게 여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지 않았다.

③ 무덤에서 나온 선율은 자신이 겪은 일을 다 말했다.

④ 선율은 염라대왕에게 저승에서 불경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3. [출제의도] 서사적 의미를 이해한다.

㉠은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지나 선율의 육신이 무덤에 있게 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은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정

되어 있는 사건임을 나타내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참기름과 베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참기름과 베를 선율에게 시주하여 바람을 이루고자 한 것이 실현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③ ‘왕명을 어이하리오.’라는 서술자의 말은 설홍이 저승으로 불잡혀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넘을수록 산이 있고 건널수록 거센 풍랑이 있다는 것은 설홍이 저승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길의 연속이었음을 나타낸다.

⑤ 설홍을 잡아 내려 주살하는 소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다는 것은 설홍이 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다.

4.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염라대왕은 설홍에게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라고 말하고 있다. 설홍이 이승에 나가면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염라대왕은 설홍에게 ‘네 말을 들으니 일리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③ 설홍은 이승을 떠나면서 ‘저 공산명월은 이제 가면 언제 불쑸. 잔잔한 시냇가에 날아오는 천둥소리 다시 듣기 어렵도다.’라고 말하고 있다.

④ 설홍은 염라대왕에게 임자 없이 버린 열매를 봉황이 물어다 주어 먹었다고 말하고 있다.

⑤ 상제를 모시던 선녀는 설홍과 더불어 글을 지어 화답하였다. 이 죄로 선녀는 풍도에서 십 년을 머무른 후에 명국 소주 땅의 구화동 왕녕의 여식으로 태어났다.

5. [출제의도]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가)에서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온 것은 염라대왕이 불경을 완성하는 것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불경 완성의 당위성 때문에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은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에서 설홍이 이승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설홍이 자신의 결백함을 염라대왕에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염라대왕이 설홍을 문초한 것은 설홍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초한 것은 설홍이 이승으로 돌아온 것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오답풀이]

① 염라대왕은 선율의 수명을 연장해 주어 이승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 이는 불경의 완성을 선업으로 여기는 가치 판단을 보여 준다.

② 이십 전 여아는 궁녀로서 신하를 간통하여 어진 성군을 죽이고 그 신하를 세우고자 한 죄로 저승에 불잡혀 왔다. 이는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 의식을 보여 준다.

③ (가)에서 선율은 이승으로 돌아오기 전 저승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눈다. 이와 같이 대화하는 장면을 제시한 것은 저승 체험에 구체성을 더한다. 그리고 (나)에서 설홍은 염라국, 즉 저승에 들어가 이십 전 여아에 대해 저승자사와 대화를 나눈다. 이 장면도 저승 체험에 구체성을 더해 준다.

⑤ (가)에서 여인은 부모가 논 한 이랑을 훔친 죄에 연루된 까닭으로 저승에 불잡혀 왔다. 그리고 (나)에서 설홍은 천도를 앓아 먹었다는 죄로 저승에 불잡혀 왔다. 여인이나 설홍 모두 도적질과 관련하여 저승으로 불잡혀 온 것이다. 이를 통해 도적질을 하면 저승에 불잡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도적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5	7.	2	8.	1	9.	4	10.	4	2104 21-25번
----	---	----	---	----	---	----	---	-----	---	-------------

6.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김씨’가 ‘노파’를 통해 ‘전후 사정’을 알게 되고 노파의 집을 떠나 ‘장시랑 덕’을 찾아가 사실을 밝히기까지의 서사의 흐름을 ‘그 밤을 지낸 후에 날이 밝자’라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보여 주고 있으

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장 시랑의 전취 부인 연씨’에서 장 시랑의 전실 부인이 ‘연씨’임을 알 수 있고, ‘전실 자제를 사랑하지 아니하옵기로’에서 ‘유씨 부인’이 ‘연씨’의 자제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신부’가 ‘심히 의심하여 짐짓 노파를 위로하고’ 노파에게 ‘상급’을 주며 ‘왔던 사람’에 대해 ‘날날이 물’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유씨 부인’이 ‘혼인날 밤에 신랑을 죽이기 위하여’ ‘자객을 구’하였으며 자객이 ‘그날 밤에 가서 신랑의 머리를 베어다가’ ‘바쳤’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시랑이 병을 ~ 들어오라 하거늘’을 통해 ‘장 시랑’이 병을 핑계로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 했으나, 결국 ‘김씨’를 들어오게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본가’로 돌아온 ‘신부’가 ‘친정 부모를 뵈옵고 전후 사실을 날날이 고’하니 ‘그 부모’가 ‘분하고 원통한 중에도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8.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의 특성 이해하기
‘노파’는 자신의 ‘양자’가 ‘신랑의 머리를 베’어 ‘유씨 부인에게 바쳤’던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고, ‘공검한 심사와 처량한 심사를 진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작품 속 공간의 의미 이해하기
‘저’가 ‘선생’에게 ‘산림에 은거하지’ 말고 ‘큰 도회지’에 살면서 ‘의식의 충족을 도모하고 달리 포부를 갖지 않’으며 살라고 조언한 것은 ‘저’가 ‘선생’을 떠나면서 한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주인택’이 ‘어느 권세가의 손에 멸망을 당’한 후 ‘소저’가 ‘타관’으로 ‘피신’하였으며 ‘그때’ ‘저’가 ‘따라’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소저’가 ‘원수의 집’에서 ‘안팎식구’를 죽이고, ‘부모의 산소’를 찾아가 ‘복수한 사실을 고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소저’가 ‘부모의 산소’를 찾아가 ‘복수한 사실을 고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선생이 기사가 못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냥 모시고 산다면’ ‘저’ 자신이 결심한 바를 저버리는 것이니 ‘내일 새벽에 떠나’ ‘면바다와 호젓한 산중에서 노닐’겠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기사를 잘 택하여 그의 처나 첩이 되’라는 ‘소저’의 당부를 따르기 위해 ‘저’가 ‘선생’을 찾아간 것은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김씨’가 ‘의복을 정제하고’ ‘장 시랑 택을 찾아가’ 는 것은 ‘장 시랑’에게 ‘신랑’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알아낸 ‘전후 사실’을 ‘날날이 아뢰’어 자신의 ‘누명을 씻’으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김씨’가 ‘유씨 부인’의 죄를 밝힌 후 그에 대한 ‘처분’은 자신이 아닌 ‘존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가부장제를 따르는 모습이므로 적절하다.
③ ‘저’는 ‘선생의 능하신 바’가 ‘큰 방법’과 ‘높은 도’에는 ‘멀리 미치지 못’하여 ‘선생’이 ‘기사라는 이름을 듣’는 것은 ‘당치 않’다고 사대부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김씨’는 ‘도령의 복색’으로 집을 나가 ‘누명을 씻’고자 하였으며, ‘저’는 ‘남장을 하고’ ‘멀리 검객을 찾아 떠’나 ‘칼 쓰는 법을 익혔’다고 하였으므로, 두 인물 모두 남장을 하고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므로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부인이 아들과 함께 있는 걸인 행색의 민시영을 엿보는 상황에서 ‘비록 구 년 전 안목을 하룻밤 보았으나 말소리를 모를소냐?’라고 한 것을 통해 부인이 남편을 알아보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민시영은 과거 시험을 보고 싶다고 월봉대사에게 부탁했지만 월봉대사는 ‘아직 말라.’라고 하였다. 그 후 민시영은 다시 부탁하지 못하고 수년을 보내는 중에 월봉대사가 갑자기 민시영에게 과거 시험 보기를 바라는지를 물어 보았기 때문에 월봉대사가 허락할 때까지 민시영이 거듭 부탁한 것은 아니다.
② 월봉대사는 ‘과장의 기구’가 없다고 말하는 민시영에게 자신이 이미 장치했다며 필묵을 내어주고 있을 뿐, 민시영을 꾸짖지는 않았다.
③ 임금은 민시영에게 ‘살기는 어디며 생장고락은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어봤지만, 그의 글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하지는 않았다.
④ 소비는 민시영을 ‘걸인’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정체를 눈치 채지 못했고, 민시영의 아들인 도련님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지도 않았다.

12.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전정에서 임금이 유사에게 명을 내리겠다고 한 것은 맞으나, 민시영이 아름다운 의관으로 고향에 돌아온 것은 아니다. 고향에 돌아온 민시영은 ‘티끌에 때가 없고 정수리에 은은한 정기가 있고, 미간에 아름다운 태도를 감추고 있’었으나 의관은 남루하였다.

[오답풀이]
① 민시영은 아내의 요청으로 십 년 동안 학업에 전념하기로 아내와 약속하고 고향을 떠났다. 그리고 북한산에서, 민시영의 이런 사연을 들은 월봉대사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정성에 감동 받아 민시영을 가르치게 된다.
②, ③ 과거 시험장에서 민시영은 북한산에서 월봉대사가 써 준 글제가 과거 시험에 나온 것을 보고 ‘선생의 명령이로다.’라고 하며 월봉대사가 말한 대로 하였다. 또한 임금의 꿈에서 월봉대사는 자신이 제시한 글제를 과거 시험에 내라고 하였는데, 이 글제는 민시영에게 써 준 글제와 동일했다. 이후 민시영이 전정에서 임금을 알현할 때 임금이 자신의 꿈속 도사가 월봉대사라고 말하였다.
⑤ 십 년 기한으로 학업에 전념하기로 약속하고 고향을 떠난 민시영이 십 년을 채우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부인은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 민시영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임금은 ‘국난에 사양상이라’를 언급하며 나라의 어지러움을 근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라를 걱정하는 임금의 마음과 민시영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을 뿐, 민시영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초월적 능력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임금의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부인은 십 년의 기한을 못 채우고 돌아온 민시영을 받아들이면 학업이 중단될 것이라 여기고 소진이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남편을 쫓아내려고 한다.
④ 임금의 꿈에 월봉대사가 나타나 자기가 제시한 글제를 과거 시험에 내라고 하였는데, 이 글제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는 민시영에게 써 준 글제는 동일하였다.
⑤ 머슴살이 하던 민시영이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아내의 간곡한 요청 때문이었다. 민시영은 자신의 사연을 숨김없이 임금에게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민시영에게 ‘네 가빈하니 또 양처를 얻었도다.’라고 말하고 있다.

14.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는 임금이 어젯밤 꿈의 연고를 해독하지 못하다가 민시영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야’ 그 연고를 알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B]는 부인이 민시영과 이별할 때의 약속을 언급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남편을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드러내고 있다.

15. 3 16. 5 17. 4 18. 5 2110 27-30번

(가) 작자 미상, 「윤선옥전」

이 작품은 윤선옥이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고전 소설이다. 천상에서 죄를 지어 인간으로 태어난 윤선옥은 전란으로 인해 아내 박 소저와 헤어져 산으로 들어간다. 선옥은 조력자를 통해 신기 묘수를 익혀 신이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선옥은 아내 박 소저와 재회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청나라 천자와 조선 임금 모두에게 인정받게 된다. 이 작품은 선옥 못지않은 박 소저의 영웅성도 잘 형상화되어 있으며, 애정 소설, 군담 소설로서의 특징도 드러나 있다.

(나) 작자 미상, 「이궁본풀이」

이 작품은 서천꽃발을 관장하는 신이 된 할락궁이의 내력을 풀이하고 있는 서사 무가이다. 사라도령이 저승의 서천꽃발 꽃감관으로 가게 되자, 임신한 몸으로 남편과 헤어진 원강아미는 천년장자의 종이 되고, 할락궁이를 낳아 기른다. 할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아 집을 떠나자 천년장자는 원강아미에게 할락궁이의 행방을 추궁한다. 원강아미는 할락궁이가 간 곳을 말하지 않겠다고 세 번 다짐하고, 이에 천년장자는 원강아미를 죽인다. 한편 서천꽃발을 찾아가서 아버지 사라도령을 만난 할락궁이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다. 할락궁이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꽃 중 일부로 어머니를 죽인 천년장자에게 복수하고, 나머지 꽃들과 회초리로는 죽은 어머니를 살린다. 이후 할락궁이는 어머니와 함께 서천꽃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된다.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꽃들이 피어 있는 서천꽃밭을 통해 신화적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15. [출제의도] 서술 방식의 특징을 비교한다.

(가)는 ‘이 산이 높고 높으니 틀림없이 이 가운데 절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절일 것이다’, ‘분명히 산신령이 인도함이구나’ 등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

16.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할락궁이는 아버지의 부재로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온갖 어리광을 부리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결핍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 ㉔에는 선옥이 선경에 들어온 이유는 드러나지만, 선경을 찾은 데서 비롯된 안도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17.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A]에서 노인은 선옥에게 선옥이 천상 세계의 태생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고, [B]에서 사라도령은 할락궁이에게 할락궁이가 지나온 물이 어머니의 눈물 또는 피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A]와 [B] 모두 인물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는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가)에서 조력자인 노인이 둔갑술로 몸을 숨기고 풍운조화를 부리는 선옥을 보고 선옥을 영웅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 조력자가 선옥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나)에서 할락궁이가 꽃을 모두 따는 것을 통해서도 조력자가 할락궁이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가)의 선옥은 높이 솟아 있는 ‘층암절벽’을 올라 천상 복두칠성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초가집’에, (나)의 할락궁이는 각각 ‘발등’, ‘무릎’, ‘자개미’, ‘잔등’에 뜨는 ‘물’을 지나 저승의 ‘서천꽃밭’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 1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 (가)에서 남악 산신령이 노인에게 보낸 ‘편지’로 선옥의 신분이, (나)에서 ‘얼레빗 한 짝’과 ‘참실 반 묶음’을 통해 사라도령과 할락궁이의 혈연관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학생 3의 진술은 적절하다.

④ (가)의 ‘천만 병서’는 선옥이 ‘신기 묘수’를 배우기 위해 필요한 책이라는 점에서, (나)의 ‘꽃들’과 ‘회초리’는 할락궁이가 어머니를 살려 내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학생 4의 진술은 적절하다.

19. 5 20. 2 21. 3 22. 1 2203 18-21번

이 작품은 우리 고전소설 가운데 널리 애독되었던 소설 가운데 하나이다. 작품의 주인공인 숙향은 김전의 외동딸로 태어난다. 본래 천상의 월궁선녀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내려온 인물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갖은 고난과 위기에 처하지만 여러 신이한 도움으로 이를 극복하고, 마침내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간다. 남주인공인 이선은 숙향의 남편이 되는 인물로 숙향과 마찬가지로 천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지상에서 숙향과 가연을 맺고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천상으로 돌아간다. 이 작품은 이 두 주인공의 사랑을 환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천상에서 죄를 지은 두 남녀가 지상의 인간으로 태어난 뒤 다시 만나 시련을 극복한 후 천상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내용인 것이다. ‘출생-성장-만남-이별-재회-완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숙향의 삶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숙향이 여러 고난을 이겨 내고 자신의 사랑을 찾아 실현하는 과정이 영웅의 삶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19.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부처가 이선에게 서왕모의 잔치에 구경을 가자고 권하니 이선이 매우 기뻐 부처를 따라 서왕모의 집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마음이 석연치 않음에도 이선이 서왕모의 잔치에 참석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이선은 부귀공명에 뜻이 없고 오로지 소아만 생각했다는 내용을 통해 이선이 요지에 다녀온 후 숙향을 보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숙향은 부모와 떨어져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러한 차에 청조가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자 하니 청조를 따라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숙향이 부모와 만나고 싶은 마음에 청조를 따라갔음을 알 수 있다.

③ 숙향은 청조를 보고 자신처럼 부모를 여의었는지를 물으며 혼자 운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숙향이 청조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며 슬픔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④ ‘으리으리하다’는 것은 ‘모양이나 규모가 압도될 만큼 굉장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다. 서왕모의 집에 이른 숙향은 너무 으리으리하여 문밖에서 주저하고 있으며, 이선은 너무 으리으리하여 동서를 분별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㉔은 숙향에게 인간 세상에서 겪은 고행에 대해 언급했으며, 옥황상제에게 숙향이 네 번 죽을 액을 지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㉔이 숙향이 인간 세상에서 겪은 고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1.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이해한다.

이선은 부처가 준 ㉔를 받아먹고 전생에서 하던 일을 떠올려 모든 선관이 자신의 친한 벗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㉔가 인물로 하여금 자신이 접하게 되는 주변 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인물이 꿈속에서 겪은 일을 실제 있었던 일로 믿는 증표가 되고 있는 것은 ㉔이다.

② 숙향은 ㉔를 이선에게 가져다주며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런데 ㉔가 계화에 걸려 떨어진 일로 숙향은 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④ ㉔, ㉔는 모두 숙향과 이선의 만남을 극적으로 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㉔는 이선이 숙향과의 일을 기록하게 만들고 있으나, ㉔는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2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3월 보름’에 숙향은 ‘청조’를 ‘초당’에서, 이선은 ‘부처’를 ‘대성사’에서 만나고 있다. 만남의 시간적 배경은 일치하나 공간적 배경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물들과 비현실적 존재들의 만남의 배경인 ‘3월 보름’, ‘초당’, ‘대성사’를 묘사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풀이]

② 숙향과 이선은 잠이 든 후 비현실적 존재들에 이끌려 서왕모의 집에 이르렀다.

③ 숙향과 이선은 모두 요지에 이르러 화려한 누각을 보고 향내를 맡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이 각각 체험을 했으나, 그 체험에 동일한 면이 있음을 나타낸다.

④ 숙향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상제가 이선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이선이 체험하는 장면에서는 이선이 겪은 일로 서술되고 있다.

⑤ 숙향이 환상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옥황상제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 숙향의 수명, 자손, 복록 등이 정해지고 있다. 이는 숙향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환상 체험을 통해 미리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23.	3	24.	1	25.	5	26.	4
-----	---	-----	---	-----	---	-----	---

2204 31-34번

23.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부인은 좋은 약을 ~ 어찌 인력으로 하겠는가’와 ‘어느 노비가 있어서 ~ 염려해 주겠는가.’에서 서술자가 상황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집안을 뒤져 보면 두 홉 양식이 있을 것’이고 ‘자학동 오홍 대감 댁을 찾아가면’ ‘구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 하고 있어, 꿈을 꾸 주체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 ‘진사’는 ‘초종례’를 치를 돈을 구하기 위해 상대인 ‘대감’에게 자신의 신분을 ‘구대 진사 댁 비복’이라 거짓을 말하고 있고, [B]에서 ‘대감’은 상대인 ‘전하’의 ‘경의 말’을 ‘전혀 모르겠’다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태경이 급년의 ~ 몇 달 부렸사옵니다’와 같이 사건의 내용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거짓 청탈’을 하는 이유를 묻는 임금에게 ‘대감’이 ‘신이 어두워 ~ 바르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신하가 군왕에 대한 윤리적 덕목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진사’가 ‘일신을 팔아’야 ‘초종례’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궁핍한 상황이라는 것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도리를 지키는 것에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심씨’가 ‘전라 감사의 귀한 여식’임에도 ‘방비’가 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의 신분과 다른 신분이 되려 했던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심씨’가 ‘부창부수’를 근거로 하며 ‘가장’인 ‘진사’와 함께 ‘가겠다고 하며 따라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유교적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대감’이 자신이 ‘이태경’을 ‘노복’으로 부린 것을 ‘죄’라고 여기며 ‘국법’을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에서, 유교적 신분 질서가 지켜지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7.	5	28.	1	29.	4	30.	1
-----	---	-----	---	-----	---	-----	---

2207 18-21번

27.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진성운이 성희, 연향과 재회하여 통곡하는 상황을 ‘산천과 초목이 함께 슬퍼하는 듯하였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8.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윤승지 댁이 야간도주를 했다는 말을 들은 진성운이 ‘분명히 태후 유경만의 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윤승지 댁의 불행이 유경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성운이 확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주점 사람은 진성운에게 진상서에 대한 소식을 전할 뿐, 진성운이 증원으로 향하던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강남골 하인은 진상서의 아들인 진성운에게 ‘하인들이 진상서의 ~ 물을 건너갔다’라고 하며 진상서 아들의 행방을 알려 주었으므로, 강남골 하인이 진성운을 알아본 것은 아니다.

④ 적진에 포위된 호원은 성운을 반기며 자신을 살려달라고 했고 뒤이어 나타난 순경에게 ‘더욱 반가워하며’ 늦게 온 이유를 물었기 때문에 순경에게 책임을 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월성덕은 진성운과 순경이 연나라 군졸들을 함몰시키는 것을 보고 ‘무슨 면목으로 고국에 돌아가겠는가?’라고 하며 연나라 군대의 패배를 인정했다.

2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연나라가 침입했을 때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유경만이 진성운과 순경이 연나라 군사를 함몰시키는 모습을 보고 ‘갈 바를 모르고 앉아 탄식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지, 진성운의 아버지인 진상서를 참소한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성희가 자신을 구해 준 사람을 보고 ‘어릴 적 성운의 얼굴이 자라서도 명백하’다며 진성운을 알아보고 진성운에게 자신이 누이임을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진성운도 누이를 알아보고 ‘누님아, 누님아! 어떤 일인가? 꿈인가! 생시인가?’라고 하며 함께 통곡하는 모습에서 진성운이 어릴 적 이산의 고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연나라 군사를 물리친 진성운이 유경만도 잡아 ‘천자께 참소하여 ~ 만분지일이라도 갚아야겠다’라고 하며 그의 죄를 말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진성운이 연나라로부터 나라를 구하면서 아버지의 원수도 갚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서사적 기능 이해하기

학녹과 함께 중원을 향해 가던 진성운은 주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 이야기 속 인물을 쫓아가게 되고 결국 누이인 성희를 구하게 된다.

31.	1	32.	4	33.	5	34.	5
-----	---	-----	---	-----	---	-----	---

2210 27-30번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영웅 소설이다. 주인공 장풍운은 명문 가문에 태어나 어려서 전쟁 때문에 부모와 헤어지게 된다. 이후 여러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게 되고, 백년가약을 맺기도 한다. 그리고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장원 급제를 한 후,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다. 입신양명하여 부귀공명을 이루게 된 장풍운은 노승의 도움을 받아 헤어졌던 부모와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된다. 가문을 재건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풍운이 위국공 위왕으로, 이경패가 정렬왕비에 오르며, 부모와 자식도 영달한다. 주인공의 영달이 가족을 영달하게 하고 가족의 영달이 가문의 명예와 번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31.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부남 태수는 자신의 내력을 원수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을 통해 그가 가달을 평정하고 돌아왔을 때 황제로부터 부남 태수를 제수받았으며 아내와 아들의 종적을 알지 못한 채로 부남에 홀로 부임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양 씨는 남자와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은 후에 남자가 자신의 며느리임을 알게 되었다.
- ③ 원수는 도적에게 잡혀갔다가 도적에 의해 버려졌다.
- ④ 원수는 왕 상서의 명으로 황성에 갔다가 과거시험을 보았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황성에 간 것이 아니다.
- ⑤ 부남 태수는 원수의 기질과 풍채를 보고 선풍도골이어서 천상의 선관이 하강한듯하다고 느꼈다.

3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B]에서 원수가 남자의 부친, 왕 상서 등의 조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D]에서는 원수의 부친이 전쟁에 나가 공을 세워 부남 태수에 부임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A]를 통해 모친이 원수의 옷을 남군의 신표로 간직하고 있는 남자를 만났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를 통해 원수가 남자와 연을 맺은 전후의 사정을 알 수 있다.
- ② [A]에서 원수의 부친이 절강의 장 도사에게 원수의 관상을 보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D]를 통해 부친이 원수가 행여 단명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절강의 도사에게 관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B]에서 원수가 한림학사를 지냈다고 제시하고 있다. [C]에서 한림학사를 제수받은 이후 대사마 대원수가 되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보기>와 관련지으면 큰 공을 세운 것이 가문의 번영을 이루는 토대가 됨을 알 수 있다.
- ⑤ [D]에서 전쟁이 원수가 가족과 헤어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C]에서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우고 돌아가는 길에 가족을 만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이 가족을 만나는 여정의 상황적 배경으로 기능한 것이다. 이는 전쟁이 원수가 가족과 재회하게 되는 노정에 오르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3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이해한다.

부남 태수는 장풍운과 이별하더라도 서로 잊지 않기 위해 장도를 장풍운에게 채우고 생년월일시를 써 비단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이에 따라 ㉠과 ㉡이 증표가 되어 가족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있다.

34.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부남 태수가 원수에게 장도를 구경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원수는 장도를 부남 태수에게 팔려 주었다. 장도를 보고 부남 태수는 자신이 아들에게 준 칼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하였다. 그런데 이때 원수가 자신의 아들로 확신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아들로 확신했다면 부남 태수가 칼을 보며 슬퍼하다가 자신의 내력을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남 태수는 원수가 풍운임을 밝히자 유서를 받아 자신의 친필임을 확인하고 있다. 증표를 통해 자신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35.	3	36.	4	37.	2	38.	3
-----	---	-----	---	-----	---	-----	---

2303 31-34번

이 작품은 제목이 남자 주인공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남자 주인공인 이대봉의 활약 외에도 여자 주인공인 장애황의 활약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장애황은 남복을 입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 큰 공을 세운다. 이와 같은 장애황의 이야기는 당대의 여성 독자층 증가, 시대에 따른 여성 의식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이 작품에서 남녀 주인공인 이대봉과 장애황은 부모끼리 혼인을 약속한 사이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어려서 고난을 겪고 따로 떨어져 생활하게 된다. 이후 두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운 후 만나 혼인해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35.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홍노왕은 황제가 항복하러 나옴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진을 굳게 하지 않았다가 뜻밖에 진중이 대란한 것을 경험하였다. 이는 홍노왕이 대봉의

공격을 미리 짐작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오답풀이]

- ① 선우는 장대에 올라 촉날이 명나라 군에 대패하고 죽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도망쳤다. 이를 통해 선우가 장 원수와 계속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장 원수는 선우를 죽이지 않으면 후환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④ 동돌수는 자신의 진중으로 공격하러 들어오는 대봉을 보고 사납게 홀겨보고 머리카락이 위로 뽐친 채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고 있다. 이는 동돌수가 대봉에 대해 분개했음을 나타낸다.
- ⑤ 대봉은 주작장군을 파하고 현무장군을 빼고 동돌수의 머리를 베어 칼끝에 꿰어 들고 큰소리로 홍노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대봉이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며 홍노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했음을 알 수 있다.

36. [출제의도] 배경의 기능을 이해한다.

대봉은 진언을 염하여 후토신장과 기백뇌공을 불러 ㉠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급한 비가 크게 오고 뇌성이 진동하여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자 적진 장졸들이 겁을 먹고 대오를 지키지 못해 금사진이 무너진다. 그러자 대봉이 이리저리 다니며 여러 명의 적군 장수들과 수많은 군사들을 죽인다. 이와 같은 활약상은 대봉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 준다. 이렇게 활약한 대봉은 홍노왕에게 항복을 요구하는데, ㉡의 변화가 일어난다. 천지가 밝아진 것인데, 이를 통해 대봉에 의해 홍노의 수많은 군사들이 죽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으로 드러난 인물의 역량이 전투에서 발휘된 결과가 ㉢ 이후에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37. [출제의도] 서사의 전개 양상을 이해한다.

장 원수는 장대에서 몽사를 생각하고 군사를 지휘하는데, 세찬 물결이 진중으로 달려드는 것을 확인한다. 장 원수는 이것이 촉날의 홍계인 줄 알고 물을 피하여 동으로 가는 체하다가 ㉠에 들어가 군사를 쉬게 한다. 수공에 의해 수세에 몰렸던 장 원수는 수공을 피해 ㉡로 가서 군사를 쉬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 원수는 자신의 군대를 뒤쫓아 온 촉날의 추격병을 급습해 죽임으로써 자신의 군대가 ㉢로 가서 매복하는 것을 촉날의 군사들이 못 보게 한다. 장 원수의 군대가 ㉢로 간 것을 모르는 촉날의 군대는 결국 같은 편인 굴막대의 복병에 의해 공격을 당해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된다. 그리고 촉날은 평구로 달아나다가 석용달의 복병을 만나 남은 군사들마저 거의 다 잃고 도망간다. 촉날은 장 원수 군사가 ㉠에 매복해 있다고 생각하고 ㉢의 좌편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장 원수를 만나 결국 죽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장 원수의 군사들이 ㉠에 있다가 ㉢로 간 것을 촉날이 모름으로써 전황이 장 원수에게 유리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장 원수는 선우에게 크게 외쳐 촉날이 이미 죽었으니 빨리 나와서 자신의 칼을 받으라고 한다. 이 말은 장 원수의 위용과 용맹함을 보여 주는 데, 장 원수가 예지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대봉은 홍노왕에게 빨리 나와 항복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봉의 위용과 용맹함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세찬 물결과 진중에 싸이는 것은 인물들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세부 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수공에 의한 것과 적군에 의해 포위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장 원수가 촉날의 머리를 베고, 대봉이 동돌수의 머리를 베는 것은 모두 두 인물의 무용이 뛰어난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두 인물 모두 무용이 뛰어난 것은 두 인물의 대등한 면모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선우가 장 원수에게 패한 것에 놀라서 도망을 치고, 홍노왕이 대봉에게 패한 것에 놀라서 도망을 치는 것은 서사의 유사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산 위에서 대포 쏘는 소리가 나고 ~ 화살과 돌이 비 오듯 하였다’와 ‘소리가 심히 처량하여 ~ 여러 군사들이 일시에 흩어지니라.’에서 감각적 묘사를 통해 작중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사관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좌승상 석침을 데리고 황성으로 향하니라’고 하였으므로 황성에서 사관이 좌승상 석침과 함께 있던 새 위왕을 만났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적군이 건디지 못하여 불길을 무릅쓰고 달아나는데, 또 위왕의 군진을 만나니 ~ 죽은 자를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를 통해 남주성에서 진골대가 위왕의 군사로부터 크게 패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백성들이 길에서 울고 있는지라 그 까닭을 물으니 답하여 말했다’를 통해 화음현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우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구골대가 능히 대적하지 못하여 ~ 죽었다.’를 통해 거창산에서 벌인 전투 이후에 구골대는 죽음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도로 용상에 누워 혼절하니 ~ 만조백관들이 허둥지둥 어찌할 줄 몰랐는데’를 통해 궐내에서 혼절한 새 황제를 보고 만조백관들이 허둥지둥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구골대가 몹시 놀라 어찌할 줄 몰라 하며 ‘죽을 줄을 알았으랴?’고 하였으므로 ㉠은 구골대를 위태롭게 하는 소재이고, ‘새 황제에게 먹이게 하였더니 ~ 상쾌해졌다’고 하였으므로 ㉡은 새 황제를 위태로움에서 구하는 소재이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군사를 일으켰다가 아까운 장수와 군졸만 죽었으니, 어찌 분하고 한스럽지 않으랴?’에는 서번왕이 군사를 일으킨 것에 대한 분함과 한스러움이 드러나 있을 뿐 제후가 황제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조충이 본디 외람한 뜻을 두었으나 매양 위왕 부자를 꺼리다가 ~ 새 황제에게 혈뜰고 죄 있는 것처럼 고하여 바친 것’이라는 것을 통해 황제가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새 위왕이 크게 놀라 문득 일광대사의 가르친 일을 생각하고 단소를 내어 ~ 여러 군사들이 일시에 흩어지니라’는 것을 통해 영웅적 기지를 발휘해 고난을 극복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서번왕’이 ‘새 황제의 조서를 받고서 망령되이 군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통해 황제가 다른 세력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제후국에 군사적 압력을 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위왕에게 항복하는 진골대가 ‘우리 왕이 구태여 싸우려 한 것이 아니라 새 황제가 시킨 것’이라는 것과 위왕의 아들 새 위왕이 ‘수천 군마가 ~ 에워싸서 말할 수 없이 절박’ 하게 된 것을 통해 제후와 황제의 갈등이 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43.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황제가 죽자 왕 부인 모자는 망극하다고 했으므로 왕 부인은 아들 조웅과 함께 황제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을 뿐, 태자를 산으로 피신시킨 것은 아니다. 황제의 죽음으로 인해 백성들이 산중으로 피란했다는 진술은 있지만 태자와 관련하여 왕 부인이 행한 일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사월 사 일에 황제의 장례를 치를 때 ‘관원들이 엄히 예의를 갖추어’ 황제를 서릉에 안장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황제는 조웅에 대해 ‘인재가 거룩하고 충효가 거룩하매 본보기가 될 만하’다고 언급하며 조웅을 태자의 서동으로 삼아 조정에 등용하려 한다.

④ 조웅은 대원수가 되어 이두병을 붙잡은 뒤, 태자를 귀양살이 보내고 사약을 내린 것과 자신을 잡으려고 장졸을 보내 시절을 요란케 한 것에 대해 심문하고 있다.

⑤ 이두병은 태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들어 태자의 즉위가 매우 위태로운 일이라고 말하며 태자의 즉위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의 황제의 죽음 이후, 비어 있는 제위를 이을 자에 대한 논의가 ㉠에 신하들이 이두병을 황제로 추대하며 마무리된다.

[오답풀이]

① 황제가 우연히 병을 얻어 병세가 열흘 동안 깊어지지만 이러한 황제의 신상에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무엇인지는 ㉠에 드러나지 않는다.

② ㉠에 신하들은 이두병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 신하들끼리 대립하고 있지는 않다.

③ ㉠에, 이두병의 반대로 조웅을 서동으로 등용하지 못하고, 조웅 아닌 다른 이의 등용도 윤택하지 않아 서동을 뽑으려던 황제의 뜻은 보류되었다. ㉡에는 서동을 뽑는 일과 관련하여 신하들이 의논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 동안 백성들은 황제의 건강을 걱정하며 회복을 기원했지만 결국 황제는 ㉡에 죽게 되어 그들의 소망은 좌절된다.

45. [출제의도] 대화의 특징 파악

[A]는 태자의 나이가 어려 제위를 전하기 어렵다는 현재의 상황을 명분으로 들어 이두병과 협정을 하라는 황제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을 상대에게 전하고 있다. [B]는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어 해명하며 상대에게 자신들의 목숨을 보전해 달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에는 물음의 방식이 드러나지만 원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A]와 [B] 모두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

④ [A]와 [B] 모두 상대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A]와 [B] 모두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에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지 않다.

4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보기>에 따르면 ‘복수’란 악인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므로 조정의 신하들이 이두병과 이관을 붙잡고 조웅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복수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조웅의 원한을 대신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승상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황제에게 조웅을 천거하지 못하도록 다른 신하들을 위협하는 이두병의 모습은 조웅의 조정 진출을 막아 시련을 가하는 악인의 모습에 해당한다.

② 이두병은 황제의 죽음 이후 어린 태자를 대신해 황제가 되려는 야망을 갖고 역모를 꾀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반란을 도모하는 것에 해당한다.

③ 대원수가 되어 팔십만 대병을 이끌고 황성에 찾아 온 조웅을 보며 모두 길에 나와 고마워하며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조웅이 이두병을 벌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는 뜻을 드러내는 모습에 해당한다.

⑤이두병을 심문하면서 태자에게 행한 일을 꾸짖으며 그를 벌하려는 조웅의 행위는 왕권 찬탈을 통해 부당하게 천자 행세를 한 그의 행위를 심판하여 대의명분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획득한 것에 해당한다

이 소설은 여진주, 화홍미라는 두 여성의 우정을 다룬 한글 소설이다. 여성들 간의 관계가 작품 전면에 등장하고 당대 사회의 남성들이 보여준 우정과 동등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이 작품의 두 주인공은 숙녀로서 당대 사회에서 중시한 유교적인 덕목을 충실히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효를 행실의 근본으로 삼아 인, 의를 구현하는 모습은 숙녀로서 이상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서사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 수 있다. 전반부는 여진주와 화홍미의 만남과 이별, 재회를 축으로 삼아 서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고, 후반부는 천자가 화홍미를 후궁으로 간택하면서 벌어지는 갈등이 형상화되어 있는 부분이다.

47.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명문가의 태생인 여 소저는 아버지 시신을 고향에 안장하기 위해 제 사랑 집의 천비가 된다. 제 사랑은 미색과 용모가 뛰어난 여 소저에게 풍류를 가르쳐 기방에 보내고자 한다. 이에 여 소저는 미친 채한다. 병에 걸려 진짜로 실성한 것이 아니다. 화 소저가 여 소저의 내력을 듣고 여 소저가 고생하며 살아온 것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여 소저가 실성한 병에 걸려 그 병을 앓으며 지내 온 이유를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화 소저는 여자의 수행을 스승에게 배우지 못하므로 여 소저와 같은 여중 군자로부터 그 법도를 본받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 화 소저가 여 소저로부터 여자로서 수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④ 천자는 조서를 내리어 화 소저를 후궁으로 간택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를 통해 천자가 화 소저를 후궁으로 간택한 일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48.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A]에서 화 공은 여 소저의 인물됨을 궁금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 소저가 답하자, 그 답을 듣고 여 소저가 규중 보옥이라고 말하고 있다. [A]에서 대화 상대에게 요청한 인물 정보와 관련하여, 상대의 답변을 듣고 [B]에서 그 인물에 관한 평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49.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이해한다.

화 공은 화 소저의 말을 듣고 여 소저에 대해 규중 보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을 보고 필법의 정묘함, 글을 쓰는 재주와 학식 등이 뛰어난데 감탄하고 있다. 화 소저의 말을 통해 알게 된 여 소저의 역량에 대한 생각이 ㉠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5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여 소저는 천자 앞에서 자신이 온갖 형벌로 죽게 될지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지조를 깨뜨리는 것은 아니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화 소저와 하늘에 맹세한 바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즉 벼과의 신의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벼과의 올바른 도리를 지향하는 것으로 여 소저가 의의 덕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천자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품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